



1일 언어의 본질

1 ○ 2 × 3 ○ 4 × 5 ○ 6 × 7 ○ 8 형식
 9 규칙 10 약속 11 기호 12 필연성 13 내용 14 인
 간 15 ㉔ 16 ㉑ 17 ㉑ 18 ㉑ 19 ㉑ 20 ㉑
 21 역사 22 사회 23 창조 24 기호 25 자의 26 ㉑
 27 ㉑ 28 ㉑ 29 ㉑ 30 ㉑ 31 ㉑ 32 ㉑ 33 ㉑
 34 ㉑ 35 ㉑ 36 ㉑ '셈틀'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셈틀'이라는 말이 사회적 약속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37 ㉑ 38 ㉑ 39 ㉑ 40 ㉑ 41 ㉑
 42 ㉑ 43 ㉑ 44 ㉑ 45 ㉑ 46 ㉑ 47 ㉑ 48 ㉑
 49 ㉑ 50 ㉑ ㉑는 일정한 어순을 따라야 하는 언어의 규칙성
 을 얻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㉑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51 ㉑ 52 ㉑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
 기 힘들기 때문이다. 53 ㉑ 54 ㉑ 55 ㉑ 인간은 말을 할
 때에 배웠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문장을 기억해서 그대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쓴다. 56 ㉑ 57 ㉑
 58 ㉑ 59 ㉑ 60 ㉑ 61 ㉑ 62 ㉑ 63 ㉑ 64 ㉑
 65 ㉑

개념 확인 문제 본문 7쪽

16 정답 풀이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말이다.

20 정답 풀이 '미르'는 예전에 '용'을 뜻하던 우리말인데, 한자어 '용(龍)'에 밀려서 사라진 말이 되었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8~11쪽

31 정답 풀이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에 문법과 같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특성을 뜻한다.

32 정답 풀이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나타낸 것이다.

33 정답 풀이 어느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34 정답 풀이 새로운 말을 만들 때, 사회적 약속을 얻지 못하면 그 말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므로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35 정답 풀이 뜻에 해당하는 언어의 내용과 음성이나 문자에 해당하는 언어의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형식이 나라나 언어권마다 다를 수 있다.

36 정답 풀이 '셈틀'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널리 쓰이기 어렵다.

37 정답 풀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한다.

38 정답 풀이 같은 대상(내용)을 가리키는데 언어마다 단어(형식)가 다른 것은 내용과 형식이 필연성 없이 결합되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39 정답 풀이 '고뿔'은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감기'보다 더 오래전부터 쓰인 말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40 정답 풀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하고 쓰이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42 정답 풀이 어떤 사람이 말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면 그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43 정답 풀이 새로운 사물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새롭게 생긴 말의 예로는 '우주선', '핸드폰', '인터넷'이 해당한다. 새로운 말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44 정답 풀이 ㉑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이를 나타낼 새말이 생긴다는 것과 과거에 있던 대상이나 개념이 사라지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㉑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같이 쓰이다가 점차 고유어가 쓰이지 않게 된 것을 보여 준다. ㉒, ㉓와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45 정답 풀이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 구조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46 정답 풀이 '드론', '자전거', '아바타', '인공위성'은 새롭게 등장한 말이지만, '생원'은 사라진 말이다.

47 정답 풀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와 달리 사람은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창조성이다.



48

정답 풀이 <보기>의 '뫼(뫼)'처럼 단어의 뜻이 변한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49

정답 풀이 언어에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은 언어의 규칙성과 관련이 있다.

50

정답 풀이 문장 성분의 어순도 언어의 법칙에 해당한다. 언어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51

정답 풀이 언어의 자의성에 따르면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52

정답 풀이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53

정답 풀이 ㉠과 같이 언어의 내용(뜻)이 변화한 것은 ㉣이다. ㉠과 ㉡는 형태와 소리가 변한 예, ㉢은 소멸의 예, ㉤는 생생의 예에 해당한다.

54

정답 풀이 '슬카지'가 '실컷'으로 바뀐 것은 언어의 형식(소리)이 바뀐 예에 해당한다.

55

정답 풀이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 달리 다양한 표현을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수능 도전

본문 12~13쪽

56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은 언어는 특징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한 글이다.

57

정답 풀이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58

정답 풀이 '끝의 구슬이 돌돌 굴러가며 잉크가 나오는 것'은 의미(내용)에 해당하고, '돌돌뫼'는 음성이나 문자(형식)에 해당한다. 언어의 의미와 음성은 임의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59

정답 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60

정답 풀이 소리가 변화한 것은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는 언어의 규칙성, ㉢은 언어의 자의성, ㉣은 언어의 사회성, ㉤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61

정답 풀이 '지갑'과 '바가지'는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도 쓰이고

있다.

62

정답 풀이 <보기>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63

정답 풀이 <보기>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은 언어의 역사성, ㉡는 언어의 자의성, ㉢은 언어의 창조성, ㉣는 언어의 규칙성과 관련이 있다.

64

정답 풀이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으며, 새말이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65

정답 풀이 '무궁화'를 '하늬꽃', '바람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음운의 체계와 특성 1 - 모음

2일

- 1 ○ 2 × 3 × 4 ○ 5 ㅏ, ㅑ 6 ㅓ, ㅕ 7 ㅗ, ㅛ
- 8 ㅜ, ㅠ 9 ㅡ, ㅟ 10 ㅡ, ㅠ 11 성대 12 ㉠ 입술, ㉡ 혀
- 13 10 14 11 15 ㉡ 16 ㉣ 17 ㉠ 18 ㉢ 19 ㉠
- 20 전설 21 후설 22 원순 23 평순 24 8개 25 ㉠, ㉡, ㅏ
- 26 ㅏ 27 올라가고 28 앞으로 29 높아지고
- 30 둥글게 31 ㉡ 32 ㉤ 33 ㉤ 34 ㉤ 35 ㉣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43 ㉣ 44 ㉡ 45 ㉢ 46 ㉤ 47 ㉡ 48 ㉠ 커지고,
- ㉡ 낮아진다 49 ㉡ 50 ㉡ 51 ㉢ 52 ㉠ 53 ㉠
- 54 ㉢ 승미가 '㉠'와 '㉡'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55 ㉢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형성할 수 없다. 56 ㉡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5쪽

27~28

정답 풀이 '㉠'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에 해당하고, '㉡'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에 해당한다.

29~30

정답 풀이 'ㅏ'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에 해당하고, 'ㅑ'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에 해당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6~19쪽

31

정답 풀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⑤ ‘이’, ‘위’와 같이 모음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32

정답 풀이 ‘물’과 ‘불’은 첫소리에 쓰인 자음 ‘ㅁ’과 ‘ㅂ’의 차이로 인해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

33

정답 풀이 단모음과 달리 이중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끝이 서로 달라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모음이다.

34

정답 풀이 길게 발음하더라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ㄹ’은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35

정답 풀이 ‘공’과 ‘강’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은 ‘ㅇ’과 ‘ㅇ’이다. ‘알’을 이루고 있는 음운은 ‘ㅇ’과 ‘ㄹ’이다. ‘눈’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다.

36

정답 풀이 ‘ㄲ, ㅋ, ㆁ, ㄷ, ㄴ’는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전설 모음이다. ‘ㅌ, ㄱ, ㆁ, ㄷ, ㄴ’는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다.

37

정답 풀이 ‘조희’에 쓰인 모음 ‘ㅛ’와 ‘ㅜ’는 모두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38

정답 풀이 혀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하며 ‘ㅞ’와 ‘ㅟ’가 여기에 해당한다.

39

정답 풀이 ‘ㅌ, ㅍ, ㄱ, ㅋ, ㆁ, ㄷ’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며, ‘ㄴ, ㄷ, ㄹ, ㄱ’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40

정답 풀이 전설 모음 중 평순 모음과 고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ㅣ’이다. 전설 모음 중 원순 모음과 중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ㅜ’이다. 후설 모음 중 평순 모음과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ㅟ’이다.

41

정답 풀이 선택지에 제시된 모음 중, 후설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ㅜ’, ‘ㅛ’, ‘ㅟ’이다.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ㅣ’, ‘ㅑ’, ‘ㅟ’이다. 고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ㅣ’, ‘ㅟ’이다. 따라서 <보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음은 ‘ㅟ’이다.

42

정답 풀이 ‘외골수’에 쓰인 모음인 ‘ㅜ, ㅛ, ㅟ’는 모두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43

정답 풀이 ‘길게 발음해도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은 단모음이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은 둥글지 않은’ 모음은 평순 모음이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모음은 전설 모음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 ㅑ, ㅟ’이다.

음은 전설 모음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 ㅑ, ㅟ’이다.

44

정답 풀이 ‘사과’의 ‘ㅏ’, ‘석류’의 ‘ㅜ’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45

정답 풀이 혀의 정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을 전설 모음이라고 한다.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한다. ‘치타’의 ‘ㅣ’는 전설 모음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다.

46

정답 풀이 ‘ㄲ, ㅋ, ㆁ, ㄷ, ㄴ’는 혀의 정점이 입 안의 앞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ㅌ, ㄱ, ㆁ, ㄷ, ㄴ’는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47

정답 풀이 ‘가을’의 ‘ㅏ’와 ‘ㅟ’, ‘봄비’의 ‘ㅛ’와 ‘ㅣ’, ‘태풍’의 ‘ㅞ’와 ‘ㅟ’는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48

정답 풀이 ‘ㅣ’는 고모음, ‘ㅑ’는 중모음, ‘ㅟ’는 저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모음을 순서대로 발음하면 입의 벌어지는 정도가 커지면서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49

정답 풀이 ‘ㅟ’는 고모음, ‘ㅣ’는 중모음, ‘ㅏ’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이들 모음을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50

정답 풀이 ‘ㅞ’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ㅞ’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ㅞ’를 길게 발음하면 끝이 ‘ㅞ’에 가깝게 바뀐다.

51

정답 풀이 <보기>에서 ㉠은 단모음, ㉡는 원순 모음, ㉢는 후설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ㅛ’와 ‘ㅟ’이다. ‘고추’에 쓰인 모음 ‘ㅛ’와 ‘ㅟ’가 여기에 해당한다.

52

정답 풀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발음하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며, ‘ㅛ, ㅜ, ㅟ, ㅑ’가 여기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에 쓰인 모음인 ‘ㅜ’와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53

정답 풀이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ㅞ, ㅟ’이다. ㉠의 ‘ㅏ’가 저모음에 해당한다.

54

정답 풀이 ‘ㅑ’는 중모음이고, ‘ㅞ’는 저모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ㅑ’는 ‘ㅞ’보다 혀의 높이가 높고 입도 더 작게 벌린다. 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55

정답 풀이 모음은 자음과 달리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음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모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능 도전

본문 20~21쪽

56

정답 풀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한다.

57

정답 풀이 단어의 의미(뜻)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58

정답 풀이 제시된 학습 활동지에서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9

정답 풀이 <보기>를 통해 ‘눈’을 짧게 발음할 때와 길게 발음할 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정답 풀이 ‘ㅏ’는 단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이중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여 내는 모음이다. ‘ㅑ’는 반모음 ‘j’와 단모음 ‘ㅏ’가 결합된 모음으로 처음에는 ‘i’에 가깝게 발음되다 점차 ‘ㅏ’에 가까운 소리로 바뀐다. 즉 발음하는 도중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61

정답 풀이 선생님이 제시한 단어들에서 최소 대립쌍은 ‘쉬리-소리’, ‘구실-구슬’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음운은 ‘ㄱ, ㄴ, l, ㅡ’이다. ‘모래’는 최소 대립쌍이 없기 때문에 ‘모래’에 쓰인 ‘ㅐ’는 추출할 수 없다.

62

정답 풀이 ‘우애’에서 ‘우’는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 고모음이고, ‘ㅐ’는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따라서 ‘우애’를 차례대로 발음하면 입술의 모양이 바뀔 뿐만 아니라 혀의 높이가 낮아지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한다.

63

정답 풀이 ‘ㄴ’은 원순 모음, ‘ㄹ’은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ㄴ’을 발음하면 ‘ㄹ’을 발음할 때와 다르게 입술이 둥근 모양이 된다. ‘ㅏ’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가 낮아지는 저모음이고, ‘ㅑ’는 입을 중간 정도로 벌리고 혀의 높이 또한 중간 정도인 중모음이다. 따라서 ‘ㅏ’를 발음하면 ‘ㅑ’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가 더 낮아진다.

64

정답 풀이 ‘개구리’에 쓰인 모음 중 ‘ㅐ’와 ‘ㅣ’는 전설 모음이지만, ‘우’는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65

정답 풀이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ㅑ’는 반모음 ‘w’와 단모음 ‘ㅏ’가 결합한 소리이다.

음운의 체계와 특성 2 - 자음

3일

- 1 ○ 2 × 3 ○ 4 ○ 5 □, ▢ 6 □, ▢ 7 ㅏ, ㅑ
 8 ㄱ, ㄴ 9 ㅏ 10 분절 11 받는다 12 코 13 유음
 14 파열음 15 마찰음 16 파찰음 17 ㉓ 18 ㉕
 19 ㉗ 20 ㉙ 21 ㉛ 22 ㉝ 23 ㉟ 24 4 25 ㅎ
 26 □ 27 ㅏ 28 ㉓ 29 ㉕ 30 ㉗ 31 ㉙ 32 ㉛
 33 ㉝ 34 ㉟ 35 ㉓ 36 ㉕ 37 ㉗ 38 ㉙ 39 ㉛
 40 ㉝ 41 ㉟ 42 ㉓ 43 ㉕ 44 ㉗ 45 ㉙ 46 ㉛
 47 ㉝ 48 ㉟ 49 ㉓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비음이다. 50 ㉓ 51 ㉕
 52 ㉗ 53 ㉙: ㅏ, ㉛: ㅑ, ㉝: ㅓ 54 ㉗ 비음(콧소리)인 ‘ㄴ,
 ㅏ, ㅑ’의 발음을 하기 어려워서 그래. 55 ㉗ (영어와 다르게)
 자음의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가 명확하게 다른 소리로 구
 별된다. 56 ㉓ 57 ㉕ 58 ㉗ 59 ㉙ 60 ㉕ 61 ㉛
 62 ㉝ 63 ㉟ 64 ㉓ 65 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3쪽

17

정답 풀이 자음 ‘ㅇ’은 음절의 첫소리(초성)에 오지 못하고, 음절의 끝소리(종성)에만 올 수 있다. 첫소리에 쓰인 ‘ㅇ’은 음가가 없다. 따라서 ‘오’는 모음 ‘ㅗ’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라고 해야 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4~27쪽

31

정답 풀이 말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는 ‘자음’,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모음’이다.

32

정답 풀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ㄱ’은 여린입천장 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다.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ㄱ’은 파열음, ‘ㅈ’은 파찰음이다.

33

정답 풀이 ‘ㄱ’, ‘ㄷ’, ‘ㅍ’, ‘ㄱ’은 파열음이지만, ‘ㅈ’은 파찰음이다.

34

정답 풀이 ‘콧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ㅏ’, ‘ㅑ’이다.

35

정답 풀이 ‘ㅎ’은 성대를 막거나 마찰하여서 내는 목청소리이다.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유음 ‘ㄹ’이다.

36

정답 풀이 ‘ㄴ, ㄹ, ㅁ, ㅇ’은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울림 소리에 해당하며, 나머지 자음은 모두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ㄱ, ㄷ, ㅋ,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38

정답 풀이 '기호'에서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39

정답 풀이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ㅋ, ㆁ'이다. '양궁'에는 3개의 여린입천장소리가 쓰였다.

40

정답 풀이 입술소리이면서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41

정답 풀이 <보기>는 잇몸소리, 파열음, 거센소리, 안울림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은 'ㅌ'이다.

42

정답 풀이 된소리는 예사소리나 거센소리에 비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딸깍딸깍'에는 된소리 'ㄸ', 'ㅃ'이 쓰였다.

43

정답 풀이 된소리는 예사소리에 비해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깜깜하다'가 '감감하다'에 비해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

44

정답 풀이 'ㄱ, ㄷ, ㅂ'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파열음이다.

45

정답 풀이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 'ㅎ' 하나뿐이다.

46

정답 풀이 <보기>는 마찰음을 설명한 것이다.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 ㅎ'이다.

47

정답 풀이 '질문 1'을 통해 안울림소리, '질문 2'를 통해 입술소리, '질문 3'을 통해 거센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은 'ㅍ'이다.

48

정답 풀이 숨을 거세게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다.

49

정답 풀이 'ㄴ, ㄹ, ㅇ'은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는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음할 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콧소리(비음)이다.

50

정답 풀이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51

정답 풀이 <보기>의 ㉠은 울림소리, ㉡는 잇몸소리와 흐름소리(유음)에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은 'ㄹ'이다.

52

정답 풀이 '고추-부추'는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음절 '고'와 '부'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53

정답 풀이 입술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ㅃ, ㅍ'이며, 이 중 예사소리는 'ㅂ'이다. 잇몸소리이면서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이며, 이 중 예사소리는 'ㅅ'이다.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비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ㅇ'이다.

54

정답 풀이 코가 막히면 콧소리인 'ㄴ, ㄹ, ㅇ'을 발음하기 어렵다.

55

정답 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사용자들과 다르게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를 각각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

수능 도전

본문 28~29쪽

56

정답 풀이 파열음은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이며 모두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짝을 이루고 있다.

57

정답 풀이 <보기>의 초성은 'ㄷ, ㅅ', 중성은 'ㅌ', 종성은 'ㄹ'이 해당한다.

58

정답 풀이 <보기>는 흐름소리에 대한 설명이며, 흐름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뿐이다.

59

정답 풀이 'ㄷ'과 'ㅂ'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60

정답 풀이 입술소리이면서, 콧소리(비음),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61

정답 풀이 코가 막히면 콧소리인 'ㄴ, ㄹ, ㅇ'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62

정답 풀이 <보기>에서 콧소리(비음)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ㄹ'이다. 'ㄹ'은 흐름소리(유음)이다.

63

정답 풀이 ㉠을 통해 영어 사용자는 한국어 사용자와 다르게 'ㅅ'과 'ㅆ'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

정답 풀이 유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리듬감을 살릴 수 있으며, 경쾌한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

65

정답 풀이 제시된 자료에서 'ㄹ'은 비음이자 울림소리로, 'ㅃ'은 파열음이자 안울림소리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비음인 'ㄹ'이 파열음인 'ㅃ'보다 강하게 파열되며 나는 소리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3일 종합 평가 본문 30~33쪽

- 1 ③ 2 ④ 3 ① 4 ④ 5 ③ 6 ④ 7 ⑤ 8 ⑤
 9 ③ 10 ③ 11 ⑤ 12 ① 13 ② 14 ① 15 ④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④

1
 정답 풀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변하기도 한다.

2
 정답 풀이 <보기>의 설명 내용은 언어의 본질 중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3
 정답 풀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4
 정답 풀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언어의 이러한 본질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5
 정답 풀이 고유어 '뫼'와 한자어 '산(山)'이 함께 쓰이다가 '뫼'가 경쟁에서 밀려 지금은 '산(山)'이 쓰이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
 정답 풀이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며, 자음 중에서 'ㄴ, ㄹ, ㅁ, ㅇ'도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7
 정답 풀이 발음할 때 입 안에서 장애를 받는 것은 자음이다. 모음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② 우리말에서 모음의 수는 21개, 자음의 수는 19개이다.

8
 정답 풀이 (가)는 단모음, (나)는 이중 모음이다. 모든 모음은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는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9
 정답 풀이 ㉠의 'ㄱ'과 'ㄴ'은 단모음이고, ㉡의 'ㄱ'과 'ㄴ'은 이중 모음이다. 길게 발음하면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10
 정답 풀이 입술을 등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단모음은 ㉠의 'ㄴ' 뿐이다. ㉡의 'ㄴ'은 이중 모음이다.

11
 정답 풀이 'ㅣ'는 고모음, 'ㅐ'는 중모음, 'ㅑ'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발음하면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

12
 정답 풀이 'ㄱ'과 'ㄷ'은 모두 파열음이기 때문에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

법이 같다.

13
 정답 풀이 입술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ㅃ, ㅍ'이다. 잇몸소리이면서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이다.

14
 정답 풀이 국어의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며, 자음 중에서는 'ㄴ, ㄹ, ㅁ, ㅇ'이 울림소리이다. 따라서 울림소리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머위나물'이다.

15
 정답 풀이 'ㄴ, ㄷ, ㄹ, ㅅ'은 모두 잇몸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16
 정답 풀이 <보기>는 잇몸소리이면서 흐름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은 'ㄹ'이다.

17
 정답 풀이 <보기>는 파열음을 발음하는 방법이다.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ㅃ, ㅍ, ㄷ, ㅌ, ㅈ, ㅊ, ㅋ'이다.

18
 정답 풀이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ㅁ, ㅂ, ㅃ, ㅍ'이며, 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ㅜ, ㅠ'이다.

19
 정답 풀이 성대의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이다.

20
 정답 풀이 ㉠은 센입천장소리 중에서 거센소리를 설명한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ㄷ'이다. ㉡는 평순 모음을 설명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이다. ㉢는 비음을 설명한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ㅁ, ㅇ'이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 1 - 표기와 발음의 원리

4일

- 1 소 2 소 3 어 4 소 5 소 6 어 7 소 8 어
 9 어 10 소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표준어 24 전통성 25 합리성 26 [의문] 27 [저하]
 28 [하비], [하비] 29 [예의], [예이] 30 [의리의], [의리에]
 31 ④ 32 ③ 33 ② 34 ⑤ 35 ④ 36 ② 37 천 원
 으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38 ③ 39 ③ 40 ⑤
 41 ② 42 ② 43 ② 44 ② 45 ④ 46 ① 47 ②
 48 ④ 49 민주주의에 약이 50 ④ 51 ② 52 ③
 53 ⑤ 54 ㉡ 모음의 장단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5 ㉡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 ③ 57 ① 58 ④ 59 ② 60 ⑤ 61 ①
 62 ④ 63 ③ 64 ③ 65 ⑤

11

정답 풀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옷 한 벌을’이라고 해야 한다.

19

정답 풀이 이 문장에서 ‘밖에’는 조사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31

정답 풀이 소리대로 적은 것은 ‘기름’, ‘사랑’, ‘손목’, ‘얼굴’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은 ‘얼음’, ‘풀잎’, ‘국화’, ‘떡이’, ‘씨앗’, ‘꽃말’이다.

32

정답 풀이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어법에 맞도록 적게 한 것이다.

33

정답 풀이 ‘꽃이’의 올바른 발음은 [꼬치]이다.

34

정답 풀이 ‘달리다’, ‘던지다’, ‘남기다’, ‘뛰놀다’는 모두 소리대로 적었지만, ‘묻히다[무치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

35

정답 풀이 ‘것’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구나’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36

정답 풀이 제44항에 따르면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삼십일만 오천육백칠십팔’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37

정답 풀이 ‘읽’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것’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으로’, ‘이’는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8

정답 풀이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에서 고유어는 대부분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9

정답 풀이 ㉠, ㉡, ㉢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고, ㉣, ㉤, ㉥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40

정답 풀이 ‘지붕’, ‘거름’, ‘마개’, ‘너무’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놀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41

정답 풀이 ‘산봉우리’는 [산뽕우리]로 소리 난다.

42

정답 풀이 ‘읽히다’는 본래 뜻이 있어 본 모양대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읽히다’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래 뜻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바른 표기는 ‘읽히고설키다’이다.

43

정답 풀이 ㉠은 ‘떡볶이’, ㉡은 ‘달걀말이’, ㉢은 ‘김치찌개’가 올바른 표기이다.

44

정답 풀이 ‘회의’를 [회의]뿐만 아니라 [회이]나 [훼이] 등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표준 발음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풀이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이다.

46

정답 풀이 단모음 중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모음은 ‘꺄’와 ‘꺏’뿐이다.

47

정답 풀이 ‘제5항-다만 2’에 따르면 ‘례’의 ‘례’는 [례]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바른 발음은 [사:례]이다.

48

정답 풀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무늬’, ‘희곡’, ‘닐리리’이며,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정의’, ‘부주의’, ‘주치의’이며,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그의’, ‘학교의’, ‘나의’이다.

49

정답 풀이 ‘민주주의의’에서 넷째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에서 둘째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50

정답 풀이 단어의 첫음절에서는 긴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눈보라’는 [눈:보라]로 발음해야 한다.

51

정답 풀이 ‘제6항-다만’에 따르면 ‘찌어 → 찌’는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2

정답 풀이 ‘제7항-1’에 따르면 긴소리를 가진 용언의 단음절 어간을 짧게 발음하려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야 한다. ‘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꼬]와 같이 길게 발음해야 한다.

53

정답 풀이 ‘제7항-1’에 따르면 긴소리를 가진 용언의 단음절 어간을 짧게 발음하려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야 한다. ‘도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니]와 같이 길게 발음해야 한다.

54

정답 풀이 모음의 장단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 모음의 장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55

정답 풀이 ‘제6항’에 따르면 모음이 길게 발음되는 단어라 하더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면 짧게 발음해야 한다.



수능 도전

본문 40~41쪽

56

정답 풀이 '그릇[그른]'은 소리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표음주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57

정답 풀이 어법에 맞도록 적게 한 것은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게 함으로써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8

정답 풀이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의 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다'와 같이 소리대로 적는다.

59

정답 풀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한복', '양복', '반지', '설레다', '아름다운'이고,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목걸이', '그립다', '늦도록', '늦었다', '아름답지'이다.

60

정답 풀이 '보다', '밖에', '만큼'은 각각 ㉠, ㉡, ㉢에서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뿐'은 ㉣에서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61

정답 풀이 '귀'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ㄱ'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꺄'의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차꺄]이다. '귀'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ㅣ'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ㅊ, ㅊ, ㅋ, ㅋ, ㅌ, ㅌ, ㄱ, ㄱ, ㅊ, ㅊ, ㅊ'의 발음 중에 없으므로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적절하다.

62

정답 풀이 '다만 2'에 따르면 '레'의 'ㄱ'은 [꺄]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무레'의 바른 발음은 [무꺄]이다.

63

정답 풀이 '귀땀'의 '땀'은 '다만 3'에 따라 [땀]으로 발음해야 한다.

64

정답 풀이 'ㄱ'을 [ㅣ]로 발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3'에 의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거나, '다만 4'에 의거 첫음절 이외의 '의'일 경우이다. '희열', '강의실', '검역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65

정답 풀이 나-2의 '반드시'는 '반듯-'을 어근으로 볼 경우, 여기에 '-이'가 붙어서 '꼭, 기필코'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는 어휘화된 산물로 판단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 2 - 받침의 발음

5월

- 1 기억 2 한복 3 응답 4 국수 5 은 6 숨
 7 북따 8 찰꼬 9 날 10 동녘 11 인따 12 간찌
 13 집씬 14 받길 15 끝따발 16 달기 17 부여케
 18 시러도 19 여덜블 20 널따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ㅎ'을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43 꼬탕기 44 ㉠ 45 ㉤
 46 ㉢ 47 ㉣ 48 ㉢ 49 ㉡ 'ㅅ'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
 되는 실질 형태소 '없-'이 왔기 때문에 'ㅅ'의 대표음인 [ㄷ]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한다. 50 ㉢ 51 ㉡ 52 ㉢ 53 ㉠
 54 ㉡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
 된다. 55 ㉠ 익따, ㉡ 일거, ㉢ 일꼬, ㉣ 익찌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43쪽

21

정답 풀이 받침 'ㅅ'은 [ㄷ]으로 발음한다.

23

정답 풀이 '히읇'의 바른 발음은 [히읇]이다.

29

정답 풀이 '외곶'의 바른 발음은 [외곶]이다.

30

정답 풀이 '밭지'의 바른 발음은 [밭:찌]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44~47쪽

31

정답 풀이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뿐이다. 받침 'ㅅ'은 [ㄷ]으로 발음한다.

32

정답 풀이 '숫지'의 '숫'은 '제9항'에 따라 [숫]으로, '지'는 '제23항'에 따라 [찌]로 발음한다. 따라서 [숫찌]가 바른 발음이다.

33

정답 풀이 '벚꽃이'의 바른 발음은 [벚꼬치]이다.

34

정답 풀이 '납지'의 바른 발음은 [낙찌]이다.

35

정답 풀이 '끝을'의 바른 발음은 [끄틀]이다.

36

정답 풀이 '값이'의 바른 발음은 [갑씨]이다.

37

정답 풀이 '날알'에서 '알'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나:달]

로 발음해야 한다.

38

정답 풀이 '제12항-1'에 의거할 때 '농다'의 바른 발음은 [노타]이다.

39

정답 풀이 '제12항-1'에 의거할 때 '닭지'의 바른 발음은 [달치]이다.

40

정답 풀이 '제12항-3'에 의거할 때 '닭네'의 바른 발음은 [단네]이다.

41

정답 풀이 '제12항-4'에 의거할 때 '싫어도'의 바른 발음은 [시러도]이다.

42

정답 풀이 'ㅎ(ㅙ, ㅞ)' 받침 뒤에 'ㅅ'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43

정답 풀이 '꽃향기'는 '제12항-1-붙임 1'과 '제12항-1-붙임 2'에 따라 [꼬향기]로 발음해야 한다.

44

정답 풀이 '닭야'의 바른 발음은 [다까]이다.

45

정답 풀이 '땡별 아래'에서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땡별'의 '별'은 [변]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④ '땡별만'은 [땡변만]으로 발음한다.

46

정답 풀이 '없어'는 '없'의 겹받침 중 'ㅅ'을 연음하고, 이때 'ㅅ' 대신 [ㅆ]으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업써]가 바른 발음이다.

47

정답 풀이 '같이[가치]'는 발음하는 과정에서 'ㄷ'이 '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음이라고 볼 수 없다.

48

정답 풀이 '홀웃'의 바른 발음은 [호돋]이다.

49

정답 풀이 '맛' 뒤에 이어지는 '없다'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받침을 그대로 연음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50

정답 풀이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ㅎ'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쌍은'의 바른 발음은 [쌍은]이다.

51

정답 풀이 '디근이'의 바른 발음은 [디그시]이다.
오답 풀이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ㅌ, ㅊ, ㅋ, ㅌ, ㅍ, ㅎ'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디그시], [지으시], [치으시], [키으기], [티으시], [피으비], [히으시] 등과 같이 발음한다.

52

정답 풀이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하기 때문에 '닭고'의 바른 발음은 [달꼬]이다.

53

정답 풀이 '외곶', '홀지', '넓게', '맑게'의 겹받침의 대표음은 모두 [ㄷ]이지만, '젊고'의 겹받침 'ㅈ'의 대표음은 [ㅈ]이다.

54

정답 풀이 '탐구 내용'을 고려할 때, 겹받침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된다.

55

정답 풀이 겹받침 'ㄷ'의 대표음은 [ㄱ]이다. 하지만 '읽고'와 같이 'ㄱ' 앞에서는 [ㄷ]로 발음하고, '읽어'와 같이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뒤에 있는 자음 'ㄱ'을 연음한다.

수능 도전 본문 48~49쪽

56

정답 풀이 겹받침 'ㄷ'의 대표음은 [ㄱ]이기 때문에 '읽지'의 바른 발음은 [익찌]이다.

57

정답 풀이 'ㅅ'은 받침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쫓다'의 바른 발음은 [쫓따]이다.

58

정답 풀이 '탐구 자료'의 내용을 고려할 때, 'ㅙ, ㅞ'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정답 풀이 '닭' 뒤에 이어지는 '앞'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겹받침 'ㄷ'은 '제15항'에 의거하여 대표음인 [ㄱ]으로 바꾼 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닭 앞으로'의 바른 발음은 [다가프로]이다.

60

정답 풀이 겹받침 'ㅈ' 뒤에 결합된 '아홉'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겹받침 'ㅈ'은 '제15항'에 의거하여 대표음인 [ㄷ]로 바꾼 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여덟아홉'의 바른 발음은 [여더라홉]이다.

61

정답 풀이 '값어치[가버치]'는 '제10항'과 '제15항'에 의거하여 겹받침 'ㅈ'을 대표음인 [ㅈ]으로 바꾼 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이다.

62

정답 풀이 '값을'은 '제14항'에 의거하여 [갑쓸]로 발음해야 한다.

63

정답 풀이 '넓은'은 '제14항'에 의거하여 [널븐]으로 발음해야 한다.



64

정답 풀이 '값진'에서 '값'의 'ㅅ'은 '제10항'에 의거하여 대표음인 [ㅂ]으로 발음하고, '진'의 'ㅈ'은 '제23항'에 의거하여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값진'의 바른 발음은 [갑진]이다.

65

정답 풀이 '웃고름'은 '웃[으]의 ㄷ(ㅅ) 받침 뒤에 연결되는 '고름'의 1음절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짧고'는 어간 '짧-'의 받침 'ㅁ(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 '-고'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 3 - 기타 발음과 표기

6월

- 1 × 2 ○ 3 × 4 × 5 ○ 6 × 7 ○ 8 격렬
- 9 병렬 10 분열 11 규율 12 확률 13 백분율 14 ㉢
- 15 ㉠ 16 ㉡ 17 두음 18 된소리 19 접미사 20 파생어
- 21 [구지] 22 [무치다] 23 [단는] 24 [곶망울]
- 25 [실라] 26 [형혁] 27 [잉는다] 28 [날:리] 29 [플립]
- 30 [숨:니불] 31 ㉠ 32 ㉣ 33 ㉡ 34 ㉡ 35 ㉣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43 ㉠ 44 ㉤ 45 ㉣ 46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 47 ㉤ 48 ㉡ 49 ㉡ 제26항에 따르면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ㄷ'은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 50 ㉡ 51 ㉢ 52 ㉤
- 53 ㉢ 54 ㉢ 제29항, ㉥ 제18항, ㉦ 제20항 55 (가) 왕능, (나) 설릉
- 56 ㉢ 57 ㉠ 58 ㉡ 59 ㉤ 60 ㉡ 61 ㉢
- 62 ㉤ 63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51쪽

1~7

정답 풀이 '잔뜩', '납작', '깎두기', '쓸쓸한'이 바른 표기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52~55쪽

31

정답 풀이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씩둑'이 바른 표기이다.

32

정답 풀이 [뚝뚝]은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뚝뚝'으로 적어야 한다.

33

정답 풀이 '무덤'은 동사의 어간 '묻-'에 접미사 '-엄'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보기>에서는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34

정답 풀이 '제39항'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이 줄어든 말은 '그렇잖은'이 적절하다.

35

정답 풀이 '넉넉하지'에서 어간 '넉넉하-'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준 경우이기 때문에 '넉넉지'로 적어야 한다.

36

정답 풀이 '역(役)'은 첫소리에 'ㄴ'이나 'ㄹ'이 들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와 뒤에 쓰일 때 형태의 변화가 없다. 즉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37

정답 풀이 '결렬'의 바른 표기는 '결렬'이다. '렬'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때에만 '열'로 적는다.

38

정답 풀이 '바다+물'을 '바닷물'로 적는 것은 ㉣가 아니라 ㉡가 적용된 것이다.

39

정답 풀이 '빨래+방'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지만 [빨래방]으로 발음되어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40

정답 풀이 한자어의 경우 두 음절로 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촛점'은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41

정답 풀이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콧날'은 [콘날]로 발음해야 한다.

42

정답 풀이 '솔직'은 '-하다'가 붙는 어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솔직히'로 적어야 한다.

43

정답 풀이 '곰곰', '더욱', '생긱', '일찍', '히죽', '오흘'은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 뒤에는 '-이'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정답 풀이 '문힌'은 받침 'ㄷ'이 접미사 '-히-'와 결합하여 '티'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로 발음한다.

45

정답 풀이 '광한루'는 'ㄴ'을 'ㄹ' 앞에서 [ㄴ]로 발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기>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⑤는 '제18항', ③은 '제19항'의 적용을 받는다.

46

정답 풀이 ㉡는 'ㄹ' 앞의 'ㄴ'이 [ㄴ]로 바뀌어 발음되고, ㉣는 'ㄹ' 뒤의 'ㄴ'이 [ㄴ]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7

정답 풀이 '굵기다'의 '-기-'는 사동의 접미사이다. 따라서

‘제24항’에 의거할 때, ‘끓기다’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 ‘끓기다’의 바른 발음은 [끓기다]이다.

48

정답 풀이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기 때문에 ‘딱지’는 바른 표기이다.

49

정답 풀이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만 된소리로 발음하고 이외의 자음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50

정답 풀이 ‘끝을’에서 ‘을’은 ‘ㅣ’로 시작하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17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1

정답 풀이 ‘ㄴ’이 ‘ㅁ’에 동화된다는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신문’은 [신문]으로 발음해야 한다.

52

정답 풀이 파열음에 해당하는 ‘ㄱ, ㅋ, ㆁ, ㄷ, ㅌ, ㅂ, ㅍ’은 ‘제18항’에 따라 ‘ㄴ, ㅁ’ 앞에서 각각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뀐다.

53

정답 풀이 ‘난로’는 ‘제20항’의 적용을 받아 [날:로]라고 발음해야 한다.

54

정답 풀이 ㉔에서는 ‘ㄴ’이 첨가되었고, ㉕에서는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었고, ㉖에서는 ‘ㄹ’ 뒤에 있는 ‘ㄴ’이 [리]로 바뀌었다.

55

정답 풀이 ‘왕릉’은 ‘제19항’, ‘선릉’은 ‘제20항’의 적용을 받는다.

수능 도전 본문 56~57쪽

56

정답 풀이 ‘돌아오다’는 ‘제15항-붙임 1’에 의거하여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57

정답 풀이 ‘노름’은 어간 ‘놀-’과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명사이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58

정답 풀이 ‘망설였다’, ‘뵈다’, ‘널따란’, ‘얼룩기가 바른 표기이다.

59

정답 풀이 ㉓는 체언 ‘그것’과 조사 ‘이’가 어울려 줄어진 경우로 ㄴ(제33항)의 규정을 적용한 적절한 사례이다.

60

정답 풀이 ‘마개’는 어근 ‘막-’에 접미사 ‘-애’가 붙은 파생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61

정답 풀이 ‘여덟이’의 바른 발음은 [여덨비]이다.

62

정답 풀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봐.’에서의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56항-2’에 따라 ‘무엇이든지’로 쓴다.

63

정답 풀이 ㉑에 해당하는 예는 ‘낮게’, ‘깊신’, ‘값고’, ‘복사’, ‘남다’이고, ㉒에 해당하는 예는 ‘앉다’, ‘안다’, ‘없다’, ‘폼다’이다.

64

정답 풀이 ‘색연필’의 바른 발음은 [생년필]이다.

65

정답 풀이 ‘제37항’에 따르면 ‘(오줌을) 누-’에 ‘-이-’가 붙으면 ‘뉘-’로 적을 수 있으며, ‘뉘’ 뒤에 ‘-어’가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㉓의 적용을 받지 않고, ‘뉘어’로 적어야 한다.

4~6일		종합 평가								본문 58~61쪽
1 ④	2 ②	3 ②	4 ④	5 ⑤	6 ①	7 ⑤	8 ④			
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⑤	19 ④	20 ②						

1

정답 풀이 ‘개나리[개:나리]’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2

정답 풀이 ㉑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하늘, 바람, 구름, 무지개’는 모두 ㉑에 따라 적은 것이다.

3

정답 풀이 표의주의에 따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4

정답 풀이 ‘찾집’은 순우리말 ‘차’와 순우리말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 ‘ㅌ’으로 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나뭇잎’은 순우리말 ‘나무’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뭇잎]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5

정답 풀이 ‘부르-+-어’는 ㉒에 따라 ‘ㄱ’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리’로 바뀌기 때문에 ‘불리’로 적어야 한다.

6

정답 풀이 ‘-르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할게’로 적는 것이 맞는다.

7

정답 풀이 ‘굳이’는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㉑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마개’는 동사의 어간 ‘막-’에 ‘-애’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㉒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8

정답 풀이 '집', '한', '채'는 각각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집 한 채'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아는 것이 힘이다.

② 닭 한 마리가 사라졌다.

③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

⑤ 이 문제는 내 동생도 풀 수 있어.

9

정답 풀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듬뿍'이 올바른 표기이다.

10

정답 풀이 '되-+-면'은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면'으로 적어야 한다.

11

정답 풀이 '넓고'는 '제10항'과 '제23항'에 따라 [널꼬]로 발음해야 한다.

12

정답 풀이 '읽지'는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익찌]로 발음해야 한다.

13

정답 풀이 '예, 레' 이외의 '캐'는 [캐]로도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지혜'는 [지혜]와 [지혜]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4

정답 풀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유희'는 [유히]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의'는 [캐]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발음한다고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유히에 의: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

15

정답 풀이 '늪 앞'에서 '앞'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늪'의 '표'를 대표음인 'ㅂ'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느 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16

정답 풀이 '않다'는 ㉠에 따라 [안타]로 발음해야 한다.

17

정답 풀이 '종소'는 ㉡를 적용하여 'ㅎ'을 발음하지 않고 'ㅅ'을 [쓰]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조:쓰]가 올바른 발음이다.

18

정답 풀이 '공룡'은 '제19항'에 따라 [공:농]으로 발음해야 한다.

19

정답 풀이 '한류'는 '제20항'에 따라 [할류]로 발음된다. '영리'와 '십란', '십리', '속리산'은 모두 '제19항'의 적용을 받아 각각 [영니], [십난], [십니], [송니산]으로 발음된다.

20

정답 풀이 '큰옷'은 뒤 단어의 첫음절이 '오'로 '제29항'에 언급된 '이, 야, 여, 요, 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ㄴ' 음이 첨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큰옷'은 [크논]으로 발음해야 한다.

7월

품사의 종류와 특성 1 - 체언

- 1 ○ 2 × 3 × 4 ○ 5 × 6 체언 7 명사 8 대명사 9 수사 10 비(명사) 11 셋(수사) 12 아버지(명사) 13 거기(대명사) 14 햄버거(명사) 15 하나(수사) 16 그녀(대명사) 17 정상(명사) 18 보, 고 19 보, 고 20 고, 보, 보 21 자, 의 22 자, 의 23 의, 자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형태, 기능, 의미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㊱ 47 ㊲ 48 ㊳ 49 ㊴ 50 ㊵ 51 ㊶ 52 ㊷ 53 ㊸ 54 ㊹ 몽룡, 방자, ㊺ 광한루 55 ㊻ ㊼은 할 아버지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고, ㊽은 상대방인 남편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56 ㊾ 57 ㊿ 58 ㊿ 59 ㊿ 60 ㊿ 61 ㊿ 62 ㊿ 63 ㊿ 64 ㊿ 65 ㊿

개념 확인 문제

본문 63쪽

13

정답 풀이 '거기'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부사이다.

24~30

정답 풀이 '이것, 저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여기, 거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64~67쪽

31

정답 풀이 품사는 단어를 공통된 성질(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뜻한다.

오답 풀이 ①은 형태소, ②는 음운, ③은 접사, ⑤는 어근에 해당한다.

32

정답 풀이 '많다, 차다, 오르다'는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이고, '공, 신발, 나무'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이다.

33

정답 풀이 '서울, 도시, 광장, 경복궁'은 모두 명사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34

정답 풀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며, 이 기준들 순서대로 적용하여 모두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35

정답 풀이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정든, 헤어지려니, 슬펐다'이다.

36

정답 풀이 '나', '그녀', '거기'는 대명사에 해당하며, '먼저'는 부사, '도착하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보기>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품사는 명사이다.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소나기'이다.

38

정답 풀이 '유희'는 명사이고, '나'는 대명사이다.

39

정답 풀이 '너'는 대명사, '다섯'은 수사, '때'는 명사, '답'은 명사이다. '말해야'는 동사이다.

40

정답 풀이 <보기>의 품사는 대명사이다. '자기'는 앞에 있는 '진우'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41

정답 풀이 <보기>에서 '꽃, 풀'은 명사, '이것, 거기'는 대명사, '다섯, 열둘'은 수사이다. 이들은 모두 불변어이며 체언에 해당한다.

42

정답 풀이 '세'는 뒤에 오는 명사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셋'은 수사이고, '세'는 관형사이다.

43

정답 풀이 문장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에 해당하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44

정답 풀이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품사는 수사이다. '하나'는 수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④ '둘째'는 뒤에 오는 명사 '주'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쓰였다.

45

정답 풀이 ㉠, ㉡, ㉢은 명사, ㉣은 대명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은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46

정답 풀이 '나, 우리, 저, 저희'는 일인칭 대명사, '자네, 너희, 너, 그대, 당신'은 이인칭 대명사, '그, 저이, 그분'은 삼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47

정답 풀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이다.

48

정답 풀이 '바'는 '공헌한'과 같이 앞에 꾸며 주는 말이 필요한 의존 명사이다.

49

정답 풀이 ㉠은 대명사, ㉡은 관형사이다. 둘 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50

정답 풀이 '수'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51

정답 풀이 '판'은 앞에 꾸며 주는 말을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이다.

52

정답 풀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이다.

오답 풀이 ①의 '한'과 ③의 '열'은 관형사이고, ②의 '둘'과 ④의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53

정답 풀이 '대로'는 명사 '원칙' 뒤에 있으므로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대로'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54

정답 풀이 '그들'은 복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그 곳'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55

정답 풀이 '당신'은 삼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이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수능 도전 본문 68~69쪽

56

정답 풀이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품사는 명사이고, '시계'가 명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저곳'은 대명사, '온갖'은 관형사, '설마'는 부사, '셋'은 수사이다.

57

정답 풀이 <보기>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한'은 뒤에 오는 명사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58

정답 풀이 ㉠은 앞에 언급한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59

정답 풀이 '아홉'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이다.

60

정답 풀이 '뭍음'은 명사이다. 명사는 불변어이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61

정답 풀이 ㉠은 관형사, ㉡은 대명사, ㉢은 명사이다. '이, 그, 저'와 같이 관형사와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의 경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여부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없다면 관형사, 붙을 수 있다면 대명사이다.

62

정답 풀이 ㉠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대명사이며, 앞에 나온 '서점'을 가리킨다.

63

정답 풀이 '모르다'는 용언, '강, 깊이, 누구'는 체언, '의, 는, 도'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64

정답 풀이 ㉠은 명사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65

정답 풀이 '두'는 관형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는 수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2 - 용언

8월

- 1 ○ 2 × 3 ○ 4 × 5 × 6 활용 7 동사 8 형용사 9 보조 10 살- 11 던지- 12 흔들- 13 크- 14 착하- 15 예쁘- 16 동 17 형 18 동 19 형 20 형 21 동 22 형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동사, ㉳ 형용사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형용사, ㉼ 동사, ㉽ -고 있다 (-는 중이다) 50 ㉾ 51 ㊀ 52 ㊁ 53 ㊂ 54 ㊃ 55 ㊄ '치렀다고'를 '치렀다'고 고쳐 써야 한다. 56 ㊅ 57 ㊆ 58 ㊇ 59 ㊈ 60 ㊉ 61 ㊊ 62 ㊋ 63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71쪽

5

정답 풀이 용언의 형태가 바뀔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72~75쪽

31

정답 풀이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뜻한다. 용언에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

32

정답 풀이 형용사인 '성실한'은 '성실하다', '성실하고', '성실하며' 등과 같이 형태가 바뀌는 단어이다.

33

정답 풀이 '올랐다'는 동사, '시원하다', '환하게', '좋은', '그립구나'는 형용사이다.

34

정답 풀이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며, '좋아하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지혜롭다', '느긋하다', '잔잔하다', '나지막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35

정답 풀이 '뛰었다', '뛰는', '뛰자'를 볼 때, 동사 '뛰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6

정답 풀이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며,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높다', '기쁘다', '상쾌하다', '따분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38

정답 풀이 '춘다'는 동사이다. ㉣의 '내린다'도 동사이다.

39

정답 풀이 '쫓던'은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40

정답 풀이 ㉢의 기본형은 '부르다'이다. '부르다'는 '부르고, 부르며, 부르니, 불러, ...' 등과 같이 활용한다.

41

정답 풀이 '있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 단어이다. 의미를 고려할 때, ㉠은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 ㉡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42

정답 풀이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품사는 동사이다. ㉡의 '바란다'는 동사이다.

43

정답 풀이 '아름답지'에서 어간은 '아름답-', 어미는 '-지'이다.

44

정답 풀이 <보기>의 밑줄 친 말인 '-자'와 '-아라', '-는 중이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다. ㉣의 '달아나다'는 동사이다.

45

정답 풀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았다'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46

정답 풀이 ㉠에 들어갈 품사는 형용사이며, '반갑다'가 형용사에 해당한다.

47

정답 풀이 <보기>의 특성을 모두 지닌 품사는 형용사이다. ㉡의 '그립다'는 형용사이다.

48

정답 풀이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이다. ㉤의 '싫어'가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먹어'는 본용언, '버렸다'는 보조 용언이다.

49

정답 풀이 '젊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늙다'는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는 어간의 뒤에 진행을 나타내는 말인 '-는 중이다(-고 있다)'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50

정답 풀이 '빠르게'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51

정답 풀이 ㉔은 명사이다.

오답 풀이 '어려운'과 '있다'는 형용사, '도우며'와 '찾는'은 동사이며, 모두 용언에 해당한다.

52

정답 풀이 '낳다'는 '낳고, 낳아, 낳지, 낳는, ...' 등과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놀다'는 '노는'과 같이 어간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지만, <보기>에서 'ㄹ' 탈락은 규칙 활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53

정답 풀이 '반가워'의 기본형은 '반갑다'이다. 따라서 '반가워'는 '반갑-+-어'로 구분해야 한다.

54

정답 풀이 어간 '날-'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 어간의 'ㄹ'이 탈락하여 '나는'이 된다.

55

정답 풀이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을 결합하면 '치렀-'이 된다. 따라서 '치뤘다'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수능 도전

본문 76~77쪽

56

정답 풀이 '늦는다'는 동사, '빠르다', '고요하고', '푸른', '지겹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57

정답 풀이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어렵다'가 형용사이다.

58

정답 풀이 '거르다'의 어간 '거르-'와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걸러서'가 된다. 어간 'ㄹ'가 'ㄹㄹ'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푸르-+-어 → 푸르러'에서는 어미가 바뀌었다.

59

정답 풀이 ㉔의 '산'에 쓰인 어미 '-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는 '-는'이다.

60

정답 풀이 '숫다'는 '숫고, 숫지, 숫아, 숫으니, ...'와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하지만, '짓다'는 '짓고, 짓지, 지어, 지으니, ...'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한다.

61

정답 풀이 '춤-+-어 → 추워'는 어간의 받침 'ㅂ'이 'ㄱ'로 바뀌었다. '뒤집-+-어 → 뒤집어'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62

정답 풀이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㉔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이때 '밝다'는 동사이다. ㉔의 '밝는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해진다는 '작용(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63

정답 풀이 <보기>의 '밝아'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뜻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㉔의 '말랐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64

정답 풀이 어미 결합을 고려할 때 ㉔에는 동사, ㉔에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마시다'는 동사, '마렵다'는 형용사이다.

65

정답 풀이 ㉔의 '묻다'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로 '묻고, 묻어, 묻게, 묻으며' 등으로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9월

품사의 종류와 특성 3 - 수식언

- 1 ○ 2 ○ 3 ○ 4 × 5 × 6 두 7 어느 8 새
- 9 그 10 한 11 저 12 온갖 13 수 14 관 15 수,
- 관 16 ㉔ 17 ㉔ 18 ㉔ 19 ㉔ 20 ㉔ 21 ㉔
- 22 ㉔ 23 ㉔ 24 ㉔ 25 ㉔ 26 이리 27 못 28 빨
- 리 29 설마 30 그러나 31 ㉔ 32 ㉔ 33 ㉔ 34 ㉔
- 35 ㉔ 36 ㉔ 37 ㉔ 38 ㉔ 39 ㉔ 40 ㉔ 41 ㉔
- 42 ㉔ 43 ㉔ 44 ㉔ 45 ㉔ 46 ㉔ 47 ㉔ 48 ㉔
- 49 ㉔ 50 ㉔ 51 ㉔ 52 ㉔ 53 ㉔ 54 ㉔ 문장에서
- 용언과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55 ㉔ '새'는
- 관형사, '새로운'은 형용사이다. '새'는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새로운'은 형태가 바뀐다. 56 ㉔ 57 ㉔ 58 ㉔ 59 ㉔
- 60 ㉔ 61 ㉔ 62 ㉔ 63 ㉔ 64 ㉔ 65 ㉔

개념 확인 문제

본문 79쪽

13~15

정답 풀이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관형사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80~83쪽

31

정답 풀이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에 포함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32

정답 풀이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33

정답 풀이 '모든'은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



이다.

34

정답 풀이 '위대한'은 '위대하고, 위대하니, 위대하며, ...'와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수식언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대한'은 형용사이다.

35

정답 풀이 수식언어 중에서 주로 체언 앞에 쓰이는 것은 관형사, 그렇지 않은 것은 부사이다. ㉠에는 부사인 '홀로'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 ③ 조사, ④ 관형사, ⑤ 조사

36

정답 풀이 '어느'는 관형사, 나머지는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영원히'는 뒤에 오는 용언 '기록될'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 ② 명사, ③ 조사, ⑤ 동사

38

정답 풀이 '새'는 관형사, '일찍'과 '무척'은 부사이다. 모두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39

정답 풀이 '비로소'는 부사에 해당한다. ③의 '재빨리'도 부사에 해당한다.

40

정답 풀이 '한, 두, 세'와 '하나, 둘, 셋'은 사물의 수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능으로 볼 때 '한, 두, 세'는 수식언어, '하나, 둘, 셋'은 체언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④의 '여러'가 관형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부사, ② 형용사, ③ 형용사, ⑤ 부사

42

정답 풀이 ㉠과 ㉡은 모두 부사이며, 뒤에 오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43

정답 풀이 용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④의 '어떤'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44

정답 풀이 부사는 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품사 중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조사이다.

45

정답 풀이 '산들산들'은 뒤에 오는 용언인 '흔들리기'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46

정답 풀이 '절대'는 뒤에 오는 말 '안 돼'를 꾸며 주고 있다.

47

정답 풀이 '깨끗이'는 부사이다. ④의 '일찍'도 부사에 해당한다.

48

정답 풀이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는 ⑤의 '모조록'이다.

49

정답 풀이 '불지'는 사물의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50

정답 풀이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어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51

정답 풀이 ④에서 '그'는 관형사, '벌써'는 부사이다.

52

정답 풀이 ②에는 '아주', '높이', '멀리' 3개의 부사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2개('모처럼', '폭'), ③ 1개('직접'), ④ 1개('일찍'), ⑤ 1개('절대')

53

정답 풀이 '감사히'는 명사 '감사' 뒤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이고, '밝히'는 형용사 '밝다'의 어근 '밝-' 뒤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이다.

54

정답 풀이 ㉠에서 부사 '가장'은 동사 '좋아한다'를, ㉡에서 부사 '매우'는 부사 '자주'를, ㉢에서 부사 '설마'는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라는 문장을 꾸며 주고 있다.

55

정답 풀이 ㉠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하는 관형사이고, ㉡은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수능 도전

본문 84~85쪽

56

정답 풀이 '새'와 '옛'은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57

정답 풀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①에서 '저'는 관형사, '무척'은 부사이다.

58

정답 풀이 ④에서 '바로'는 뒤에 오는 동사 '말해라'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59

정답 풀이 '아직'은 '문제'가 아니라 '못 풀었는데'를 꾸며 준다.

60

정답 풀이 ②에서 '활짝'과 '당당히'는 모두 부사이다.

61

정답 풀이 ㉠은 관형사, ㉡은 부사이다. 부사는 용언과 부사, 체언, 문장 등을 꾸며 주지만, 관형사는 체언만 꾸며 준다.

62

정답 풀이 <보기 2>에 제시된 단어 중 '둘째', '여섯'은 수 관형사로 쓰이지만, 수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다. '하나'는 관형사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세'이다.

63

정답 풀이 ㉓ '이'는 명사 '사과'를, ㉔ '그'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㉕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㉖ '이리'는 용언 '오게'를, ㉗ '그리'는 용언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64

정답 풀이 '아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5

정답 풀이 ㉑과 ㉒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하며, ㉓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 ㉔은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에 해당한다.

10월 품사의 종류와 특성 4 - 관계언, 독립언

1 ○ 2 ○ 3 × 4 × 5 ○ 6 ○ 7 ○ 8 가, 의, 이다 9 은, 가, 이다 10 가, 에게, 을 11 가, 과, 를, 에 12 는, 부터, 까지 13 격 14 접속 15 보 16 감탄사 17 ㉓ 18 ㉔ 19 ㉕ 20 ㉖ 21 ㉗ 22 ㉘ 23 ㉙ 24 아차 25 없음 26 네 27 여보세요 28 저 29 없음 30 천만에 31 ㉑ 32 ㉒ 33 ㉓ 34 ㉔ 35 ㉕ 36 ㉖ 37 ㉗ 38 ㉘ 39 ㉙ 40 ㉚ 41 ㉛ 42 ㉜ 43 ㉝ 44 ㉞ 45 ㉟ 46 ㊱ 47 ㊲ 48 ㊳ 49 ㊴ 50 ㊵ 51 ㊶ 52 ㊷ 53 ㊸ 54 감탄사, 관형사, 명사, 조사, 대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55 ㉑, ㉒ ㉑에서 '만큼'은 앞에 있는 '노력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56 ㉓ 57 ㉔ 58 ㉕ 59 ㉖ 60 ㉗ 61 ㉘ 62 ㉙ 63 ㉚ 64 ㉛ 65 ㉜

개념 확인 문제 본문 87쪽

4

정답 풀이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 이며, 이지, ...'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

25

정답 풀이 '지원아'에서 '지원'은 명사, '아'는 조사에 해당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88~91쪽

31

정답 풀이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이다.

32

정답 풀이 ㉒는 감탄사, 관형사, 명사, 부사,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33

정답 풀이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는 주격 조사이다.

34

정답 풀이 '쉽게'는 형용사이며,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㉑의 '가', ㉒의 '처럼', ㉓의 '도', ㉔의 '만'이 조사에 해당한다.

35

정답 풀이 <보기>를 통해 보조사 '도'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정답 풀이 <보기>에서 보격 조사 '이/가'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에서 '되었다' 앞에 쓰인 '이'가 보격 조사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는 조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38

정답 풀이 관형사 '두' 뒤에 조사 '의'를 붙일 경우 비문이 되는 것처럼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39

정답 풀이 '그것 좋아요.'에서는 조사가 생략된 것을, '그것만으로도 좋아요.'에서는 세 개의 조사가 겹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

정답 풀이 ㉑과 ㉒은 모두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조사이다.

41

정답 풀이 '조용히'는 부사이다.

42

정답 풀이 '속도가'의 '가'는 '아니라' 앞에 쓰였으므로 보격 조사에 해당한다.

43

정답 풀이 ㉓의 '과'와 ㉔의 '와'는 접속 조사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㉑의 '와'와 ㉒의 '과'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없다.

44

정답 풀이 '으로'와 '에'는 모두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부사격 조사이다.

45

정답 풀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는 조사이다. '에서'가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은 감탄사, ㉡은 동사, ㉢은 관형사, ㉣은 명사이다.

46

정답 풀이 ㉠의 '와'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는 접속 조사이다.

47

정답 풀이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48

정답 풀이 '이봐'는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49

정답 풀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이면서, 놀람이나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50

정답 풀이 '과연'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51

정답 풀이 ④에서 심포 앞에 쓰인 '사랑'은 명사이다.

52

정답 풀이 '부를 때 쓰는 말'을 고려할 때, '여보시오'는 감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정답 풀이 ④의 '이런'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쓰였으므로 감탄사이다.

54

정답 풀이 '저런'은 감탄사, '그'는 관형사, '일'은 명사, '은'은 조사, '나'는 대명사, '도'는 조사, '정말'은 부사, '슬프구나'는 형용사이다.

55

정답 풀이 ㉠의 '만큼'은 '노력한'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수능 도전

본문 92~93쪽

56

정답 풀이 ⑤의 '그런'은 뒤에 오는 명사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57

정답 풀이 조사 중에서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에 해당하는 것은 서술격 조사 '이다'뿐이다.

58

정답 풀이 조사의 기능 중에서 앞의 체언을 다른 품사로 만드는 기능은 없다.

59

정답 풀이 '애'는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다.

60

정답 풀이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이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선택된다.

61

정답 풀이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하지만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에서 '와'는 '개'와 '고양이'가 같은 자격으로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도록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와'는 보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이다.

62

정답 풀이 ㉢에 쓰인 조사 '에게'와 '로'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63

정답 풀이 '교실의'의 '이'는 주격 조사, '사실의'의 '이'는 보격 조사이다. '되다'나 '아니다' 앞에 쓰인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64

정답 풀이 밑줄 친 단어는 모두 격 조사에 해당하며, 격 조사는 실질적인 뜻이 없고 체언과 결합하여 쓰인다.

65

정답 풀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품사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다른 단어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관형사, 부사)이다.

7~10일

종합 평가

본문 94~97쪽

1 ③	2 ⑤	3 ⑤	4 ①	5 ①	6 ⑤	7 ②	8 ④
9 ③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④	
16 ⑤	17 ③	18 ②	19 ①	20 ⑤			

1

정답 풀이 단어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를 뜻하면 동사, '불빛 따위가 환하다.'를 뜻하면 형용사이다.

2

정답 풀이 '두'는 뒤에 오는 체언인 '학생'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3

정답 풀이 '즐거운'의 기본형은 '즐겁다'이다. '즐겁고, 즐거워, 즐거우니, ...' 등과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4

정답 풀이 '미소'는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5

정답 풀이 ㉠은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사, ㉡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기 때문에 관형사, ㉢은 조사와 결합하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이다.

6

정답 풀이 대명사를 설명한 것으로, ⑤에는 대명사가 쓰이지 않았다. '이'는 관형사, '것'은 의존 명사이다.

7

정답 풀이 ㉠은 감탄사, ㉡은 대명사, ㉢은 대명사, ㉣은 대명사, ㉤은 관형사, ㉥은 명사이다.

8

정답 풀이 '못'은 부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9

정답 풀이 '돌째'는 뒤에 오는 체언 '형'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10

정답 풀이 '마르다'는 동사이다. 어간 '마르-' 뒤에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말인 '-는 중이다'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구별된다.

11

정답 풀이 '무슨'은 뒤에 오는 체언인 '영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에 해당한다.

12

정답 풀이 '한'은 뒤에 오는 체언 '그루'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에 해당한다.

13

정답 풀이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하지만, 부사는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체언 등을 수식하기도 한다.

14

정답 풀이 ③에서 '모든'은 관형사, '꼭'은 부사이다.

15

정답 풀이 ④에서 '꼭'은 용언인 '궁금하구나'를 꾸며 주고 있다.

16

정답 풀이 '온갖'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이다. '광광', '휘영청', '절대로', '조용히'는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17

정답 풀이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 이며, 이니, 이므로, ...' 등과 같이 형태가 바뀐다.

18

정답 풀이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19

정답 풀이 ①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개는 비슷하게 생겼다.'와 '늑대는 비슷하게 생겼다.'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없다.

20

정답 풀이 '는'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ㄴ에서 '승미는'은 주어이지만, ㄷ에서 '문제 는'은 목적어이다.

11월

어휘의 체계와 양상

- 1 ○ 2 × 3 ○ 4 ○ 5 ○ 6 고 7 한 8 외
- 9 외 10 고 11 한 12 외 13 한 14 고 15 고
- 16 외 17 ㉢ 18 ㉣ 19 ㉡ 20 ㉡ 21 ㉢ 22 ㉠
- 23 사회 24 은어 25 유행어 26 전문어 27 은어
- 28 고유어 29 유행어 30 표준어 31 ㉡ 32 ㉣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외래어, ㉡ 우리말 어휘를 보충하여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
- 47 ㉡ 48 ㉠ 49 ㉡ 유행어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50 ㉤ 51 ㉠ 52 ㉤ 53 ㉡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의 이름을 금기어로 하여,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54 ㉠
- 55 ㉡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유행어(은어)들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56 ㉢ 57 ㉣ 58 ㉣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99쪽

15

정답 풀이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고유어이다.

17~18

정답 풀이 '형(兄)'과 '반찬(飯饌)'은 한자어이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00~103쪽

31

정답 풀이 고유어는 본디부터 있던 말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더 오래전부터 쓰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외래어로,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 중 하나에 해당한다.

33

정답 풀이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불이를 잘게 썰어 볶은 것에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인 '잡채(雜菜)'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34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고유어에 해당한다.

35

정답 풀이 한자어 '집착하다'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를 뜻한다.

36

정답 풀이 ㉡는 한자어, ㉣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새로운 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37

정답 풀이 <보기>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려는 노력의 결



과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8

정답 풀이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룬 사례로는 ②가 적절하다.

39

정답 풀이 ③의 '생각'은 문맥을 고려할 때, 한자어 '기대(期待)'로 바꾸어 쓰는 게 자연스럽다.

40

정답 풀이 '실현하다'는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룬다.'를 뜻한다. 따라서 '실현할'은 '이룰'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1

정답 풀이 <보기>의 밑줄 친 한자어들은 모두 고유어 '고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42

정답 풀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방언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알고 이를 살려 나가는 태도도 필요하다.

43

정답 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 유행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유행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전문적 지식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다.

44

정답 풀이 1문단에서는 국어 생활에서 반성할 점으로 은어를 지적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45

정답 풀이 은어와 지역 방언은 공통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

46

정답 풀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는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

47

정답 풀이 외래어와 외국어는 둘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외국어와 달리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에 속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말 어휘를 보충해 준다.

48

정답 풀이 <보기>는 시장에 따라 숫자를 세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한다.

49

정답 풀이 유행어는 그 말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50

정답 풀이 은어는 자기 집단 구성원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는 말이지, 장난기 어린 표현이나 반항적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아니다.

51

정답 풀이 '큰집'은 죄수들 사이에서 '교도소'를 이르는 은어로 사용되었다.

52

정답 풀이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단어인 금기어라고 볼 수 없다.

53

정답 풀이 <보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호랑이를 직접적으로 일컫는 것을 꺼리고 그 대신 완곡어를 사용하여 불렀음을 알 수 있다.

54

정답 풀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부러 많이 쓰려고 하기보다는 어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정답 풀이 특정 세대에서 주로 쓰이는 유행어나 은어를 사용하면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수능 도전

본문 104~105쪽

56

정답 풀이 (다)의 각 어휘들은 그 세분화된 의미가 모두 다르므로 문장 속에서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57

정답 풀이 외국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 외래어의 지위를 얻게 된다.

58

정답 풀이 ㉔는 지역 방언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다.

59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한자어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고유어에 비해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쓰인다.

60

정답 풀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61

정답 풀이 '닭다'는 기자들 사이에서 은어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④는 모두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62

정답 풀이 어느 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의해 널리 쓰이는 말을 '유행어'라고 한다.

63

정답 풀이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성격이 강해서 암호처럼 쓰이는 말을 '은어'라고 한다.

64

정답 풀이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직업의 명칭이 변한 사례이다.

65

정답 풀이 (가)의 밑줄 친 단어들은 전문어이고, (나)의 밑줄 친 단어는 은어이다. 전문어와 은어의 공통점은 그것을 쓰지 않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2월 어휘의 의미 관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① 13 ③ 14 ③ 15 ②
 16 ③ 17 ① 18 밤 19 왼쪽 20 도착 21 제자
 22 낮다 23 뜨다 24 받다 25 내리다 26 동물
 27 약기 28 꽃 29 문학 30 신발 31 ① 32 ④
 33 ④ 34 ⑤ 35 ③ 36 바람(꿈) 37 ② 38 ⑤ 39 ④
 40 ① 41 ⑤ 42 ② 43 ④ 44 ③ 45 있으므로, 다의어, 하나의 46 ② 47 ③ 48 ③ 49 ⑤ 50 ②
 51 ③ 52 ③ 53 ③ 54 ④ 55 다르지, 다르잖아 / 예 '갈다'의 반의어는 '다르다'인데, 현우는 '틀리다'라는 말로 잘못 사용하였다. 56 ④ 57 ⑤ 58 ③ 59 ① 60 ③ 61 ①
 62 ⑤ 63 ④ 64 ③ 65 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07쪽

7

정답 풀이 유의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08~111쪽

31

정답 풀이 '해로운'과 '이로운'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32

정답 풀이 문맥을 고려할 때 '잠갔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채웠다'이다.

33

정답 풀이 '눈'과 '비'는 다양한 기상 현상 중의 일부이지, 반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없다.

34

정답 풀이 '가늘다'의 반의어는 '굵다'이다. '두껍다'는 '얇다'의 반의어이다.

35

정답 풀이 ③의 '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반의어로는 '닫다'나 '다물다'가 적절하다.

36

정답 풀이 '희망'과 유의 관계에 있는 고유어는 '바람'과 '꿈'이다. '바람'은 어근 '바라-'와 접미사 '-ㅁ'이, '꿈'은 어근 '꾸-'와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37

정답 풀이 <보기>에서 '뿔다'라는 단어가 쓰인 문맥을 고려할 때, 반의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각각 '심다', '박다', '떡다'로 다르게 나타난다.

38

정답 풀이 동음이의어가 쓰인 문장은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9

정답 풀이 ④의 '쓸'과 '쓰지'는 그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40

정답 풀이 ①의 '풀'은 '짚이나 밀가루 따위의 전문질에서 빼낸 끈끈한 물질.'을 뜻할 수도 있고,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할 수도 있다. 또한 '수영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뜻할 수도 있다.

41

정답 풀이 <보기>의 ㉠~㉥은 소리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42

정답 풀이 ㉠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의미하지만, ㉡의 '발'은 '총알, 포탄, 화살 따위를 세는 단위.'를 의미한다.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한다.

43

정답 풀이 '흉내'와 '시늉'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④의 '밝다'와 '환하다'도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⑤는 모두 반의 관계를 맺고 있고, ③은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44

정답 풀이 '번지다'와 '퍼지다'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45

정답 풀이 ㉦의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을 의미하며, ㉧의 '머리'는 '단체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두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의어이고, 국어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46

정답 풀이 '눈'의 중심 의미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다. ②의 '눈'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주변 의미로 쓰였다.

47

정답 풀이 '떡다'의 중심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이다. ③의 '떡기로'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주변 의미로 쓰였다.



48

정답 풀이 <보기>의 ㉠과 ㉡은 다의어이며, 다의어가 쓰인 것은 ㉢이다. 나머지는 모두 동음이의어이다.

49

정답 풀이 중심 의미인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의 '작고'이다.

오답 풀이 ㉠은 ㉡, ㉡는 ㉤, ㉢은 ㉣, ㉣는 ㉢의 의미로 각각 쓰였다.

50

정답 풀이 다의어는 동음이의어와 달리 의미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51

정답 풀이 ㉠은 '어디를 거처여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쓰인 것은 ㉢의 '지나고'이다.

52

정답 풀이 <보기>에서 '타악기'는 상의어, '드럼'은 하의어이다. '부장'과 '과장'은 직급의 높고 낮음을 나타낼 뿐 상의어와 하의어 관계라고 볼 수 없다.

53

정답 풀이 ㉠은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다.

54

정답 풀이 상의어가 하의어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악기'가 '첼로'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55

정답 풀이 '갈다'의 반의어는 '다르다'이다. '틀리다'는 '맞다'의 반의어이다.

수능 도전

본문 112~113쪽

56

정답 풀이 ㉣에는 반의어가 쓰이지 않았다.

57

정답 풀이 '파랗다'는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푸르다'와 유의 관계에 있다.

58

정답 풀이 ㉣의 '틈'은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의미로 쓰였다. '사이'와 '겨를'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59

정답 풀이 ㉠과 ㉡의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60

정답 풀이 '의지하다'의 유의어는 '기대다'이다.

61

정답 풀이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라는 뜻의 '쓰다'가 될 수 있다.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는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의 '메다'가 될 수 있다.

62

정답 풀이 '묻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용례에서 '물었다'는 '질문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3

정답 풀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로 쓰인 단어는 ㉣의 '밝혔다'이다.

오답 풀이 ㉢의 '밝히다'는 '드러나게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64

정답 풀이 ㉠은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맡기는'은 ㉠과 바꿔 쓸 수 없다.

65

정답 풀이 '차다'의 '[...에], [...으로]'를 보면 '차다'는 주어 이외에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다'는 주어만 필요로 한다.

11~12일 종합 평가

본문 114~115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정답 풀이 외래어도 국어의 어휘 체계에 포함되며,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조건 외래어 사용을 자제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가려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정답 풀이 문맥을 고려할 때 '가리키는'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한자어는 '의미(意味)하는'이다.

3

정답 풀이 유행어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유행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개성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4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외래어이다. 유사한 뜻을 지닌 고유어에 비해 좀 더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자어이다.

5

정답 풀이 <보기>의 대화에서는 전문가가 쓰이고 있다. 전문어는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암호처럼 만든 말은 아니다.

6
정답 풀이 고유어 '좋다' 하나에 다섯 개의 한자어가 유사한 의미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더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답 풀이 ㉠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의 '쏟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과 의미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의어 관계에 해당한다.

8
정답 풀이 하나의 단어는 의미에 따라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 ㉠의 반의어로는 '달다'나 '잡그다', ㉡의 반의어로는 '끝내다'나 '마치다'가 적절하다.

9
정답 풀이 ㉠은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다.

10
정답 풀이 '괴다'는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1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유의어로 볼 수 있다.

13일 문장과 문장 구성의 단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이다 12 동사 13 형용사 14 동사
 15 구, 절 16 ㉣ 17 ㉠ 18 7개 19 도착했다, 동사
 20 절 21 구 22 무엇이 어떠하다 23 무엇이 어찌하다
 24 평서문 25 감탄 26 청유 27 판정 28 구 29 절
 30 무엇이다 31 ㉤ 32 ㉡ 33 도끼를 잃어버린, 눈이 큰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에: 완결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54 ㉠: 의문문, ㉡: 평서문, ㉢: 명령문 55 ㉡
 ㉠: 너 어디 가니? ㉡: 너 밥 먹었어? ㉢: 얼마나 좋을까? 56 ㉠: 긍정, ㉡: 부정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18~121쪽

31
정답 풀이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32
정답 풀이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마디로 띄어쓰기의 단위인 것은 어절이다.

33
정답 풀이 '도끼를 잃어버린'은 '주어(나무꾼이)-서술어(잃어버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문장 안에서 '나무꾼'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고, '눈이 큰'은 '주어(눈이)-서술어(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문장에서 '사슴'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둘 다 절에 해당한다.

34
정답 풀이 '도둑이야!'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예에 해당한다. '무주어문'이라고도 하며, 서술어가 '체언+이다'일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종류의 문장이다.

35
정답 풀이 명령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듣는 이가 되어야 한다.

36
정답 풀이 ㉠은 문장에, ㉡은 구(주어-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 ㉢은 어절(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앞말에 붙어 하나의 어절을 이룸.)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먹었니'는 한 단어이다.

38
정답 풀이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고,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은 평서문, ㉡은 의문문, ㉢은 명령문과 청유문이 해당된다.

39
정답 풀이 구나 절은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이지만,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 구와 절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0
정답 풀이 ㉡은 듣는 이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강조, 확인의 목적에서 사용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42
정답 풀이 '오늘은 교회에 좀 일찍 가요.'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평서문, 남에게 시키는 것이라면 명령문, 남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청유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43
정답 풀이 ㉢과 ㉤은 둘 다 수사 의문문으로, 듣는 이에게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44
정답 풀이 ㉡을 보면 어머니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도 명령문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정답 풀이 '아니다'는 형용사이므로, '누가/무엇이 어떠하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46
정답 풀이 '추워지다'는 동사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⑤ '적극적이야'는 '적극적(명사)+이다'의 활용형이다.

47

정답 풀이 관형어 '약속을 꼭 지키는'은 절에 해당하고, 서술어가 '사람이다'이므로 '누가/무엇이 무엇이냐'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48

정답 풀이 '오늘내일 중으로'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둘 이상의 단어만 모여 있으므로 구에 해당한다.

49

정답 풀이 ㉠ '무엇'을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설명하는 대답을 했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대답의 내용으로 보아, '누구'의 정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 '뭘'을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을 했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어디'를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을 했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대답의 내용으로 보아, '언제'의 시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볼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50

정답 풀이 서술어 '주었다'가 동사이므로 '누가/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51

정답 풀이 명령문보다는 청유문이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더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52

정답 풀이 '어렵다'는 형용사이므로 '누가/무엇이 어찌하다'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정답 풀이 문장은 의미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이 끝남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54

정답 풀이 문장 종류는 억양에 따라 구별될 수도 있는데, 낮은 내림조는 평서문에 많이 쓰이고 올림조는 의문문에 많이 쓰이며 수평조는 명령문에 많이 쓰인다.

55

정답 풀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너 어디 가니?'와 같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은 '너 밥 먹었어?'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면서 서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와 같이 만들 수 있다.

56

정답 풀이 수사 의문문은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의 수사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 의문문을 반어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수능 도전

본문 122~123쪽

57

정답 풀이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지만, ④의 '먹읍시다'에서 '먹다'라는 행위에 참여할 사람은 '화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8

정답 풀이 ㉢은 종결 어미를 통해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국어 문장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 표시된다.

59

정답 풀이 ②는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어이가 없다.'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의문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는 의문사 고유의 의미, 즉 '어디에, 왜, 누가, 무슨'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60

정답 풀이 ㄱ. '먹어 봐라'의 '-아라'는 청자(영희)의 '먹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ㄴ. '찾으라'의 '-으라'는 일반적인 발화 상황에서 청자(청년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ㄷ. '넘어질라'의 '-라'는 청자(철수)가 '넘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61

정답 풀이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령법의 문장에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예쁘다, 영원하다, 편안하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서 명령법의 서술어로 쓸 수 없다.

62

정답 풀이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는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63

정답 풀이 ㉢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을 나타낸 수사 의문문이다.

64

정답 풀이 지금 시각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기 보다는, 상황으로 보아 지각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

65

정답 풀이 ⑤의 '어디 보자.'는 청유형 어미를 취하고는 있지만, 특정 청자를 염두에 둔 발화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우므로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장 성분 1 - 주성분

14일

- 1 ○ 2 × 3 × 4 ○ 5 부사어 6 서술어 7 관형어
 8 보어 9 주어 10 목적어 11 주어 12 서술어
 13 주어 14 서술어 15 목적어 16 이다 17 형용사
 18 타동사 19 한 자리 20 세 자리 21 두 자리 22 세 자리
 23 두 자리 24 3개 25 무슨, 제일 26 기선아
 27 보어 28 필수 29 자동사 30 문제로 31 ④
 32 ② 33 ③ 34 ② 35 두 자리 36 ① 37 ③
 38 ① 39 ⑤ 40 ① 41 ③ 42 ⑤ 43 ② 44 ④
 45 ③ 46 ② 47 ③ 48 ④ 49 ① 50 ③ 51 ⑤
 52 ② 53 ④ 54 ㉠: 언니는(주어), 책을(목적어), 좋아해(서술어), ㉡: 여기는(주어), 환하구나(서술어), ㉢: 나는(주어), 공부해(서술어), 과학자가(보어), 되었다(서술어) 55 그는, 우리말을, 구사하여, 우리에게, 걸작을, 남겼다 56 ㉠: 한 자리 서술어, ㉡: 세 자리 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57 ③ 58 ⑤
 59 ① 60 ① 61 ② 62 ④ 63 ⑤ 64 ③ 65 ②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26~129쪽

31

정답 풀이 ㄱ.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주성분이다. ㄷ. 독립어는 독립 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2

정답 풀이 보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33

정답 풀이 ㉢은 보어이다.

34

정답 풀이 ㉠의 '군인이'는 보어, ㉡의 '독서를'은 목적어에 해당한다.

35

정답 풀이 '얻었다'는 주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6

정답 풀이 '아름다웠다'는 형용사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뛰었다'는 자동사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37

정답 풀이 '되었다'는 주어,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었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38

정답 풀이 '같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분다', '잔다', '피었다'는 자동사로 한 자리 서술어, '예뻐다'는 형용사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39

정답 풀이 '받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퍼진다'는 한 자리

서술어, '아니다', '됐다',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0

정답 풀이 ㉠의 '할아버지와'는 필수적 부사어로 수의 성분이 아니라 필수 성분이다. 따라서 ㉠에는 수의 성분이 '많이'의 1개뿐이다.

41

정답 풀이 '빵도'는 '빵' 뒤에 '을' 대신 보조사 '도'가 붙어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42

정답 풀이 '책'은 목적어이다. ㉢('버스')는 목적어이고, 그 외에 '너'는 주어, '친구들과'는 부사어, '응'은 독립어, '같이'는 부사어이다.

43

정답 풀이 '솟는다'는 '...이 솟다'의 구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높이'는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44

정답 풀이 '그녀는'은 서술어 '부르고', '춘다'의 동작 및 행위 주체이므로 주어에 해당한다.

45

정답 풀이 ㉢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눈'), 서술어('오는구나')의 두 개이고, ㉡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내 동생은'), 목적어('그림책을'), 서술어('읽고 있다')의 세 개이다.

46

정답 풀이 '떨리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추위에'나 '흥분으로'를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

오답 풀이 ⑤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라는 뜻의 '치르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무슨 일을 겪어 내다.'라는 뜻의 '치르다'는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47

정답 풀이 '출석했다'는 주어, 부사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

48

정답 풀이 '되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면, '돌다 ㉡'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49

정답 풀이 '적합하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50

정답 풀이 ㉠에는 '회의에', '투표에' 따위의 부사어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반장이' 따위의 보어가 들어가야 한다.

51

정답 풀이 ㉢의 '보냈다'와 ㉡의 '보냈다'는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52

정답 풀이 '아내에게'는 부사어이므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



분이지만, '주었다'의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수의 성분이 아닌 필수 성분이다.

53

정답 풀이 '물고기가'는 보어이다. 나머지는 주어이다.

54

정답 풀이 ㉠: '정말'은 부사어이다. ㉡: '우아'는 독립어, '목적'은 부사어이다. ㉢: '열심히'는 부사어이다.

55

정답 풀이 '구사하여'는 주어, 목적어를 요구하며 '남겼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순수'는 관형어, '자유자재로'는 부사어이고, '많은'은 관형어이다.

56

정답 풀이 ㉠의 '피었다'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활짝'은 부사어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의 '선물했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의 '잡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는 관형어, '꼭'은 부사어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수능 도전

본문 130~131쪽

57

정답 풀이 ㉠의 목적어 '빵을'과 ㉢의 목적어 '우유나'를 생략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과 ㉢의 비교를 통해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다고 탐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은 목적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다.

58

정답 풀이 한 문장 안에 목적어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 목적격 조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선생님께서 책 열 권을(/책을 열 권) 주셨다.

오답 풀이 ㉣ '나는 영수와 만났다.'에서 '와'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부사격 조사 대신 목적격 조사인 '를'이 사용되기도 한다.

59

정답 풀이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에서 서술어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관형사절인 '화단도 아닌' 속에 보어 '화단도'가 포함되어 있다. 보어는 일반적으로 조사 '이/가'와 결합하지만 보조사와 결합하거나 아예 조사와 결합하지 않기도 한다.

60

정답 풀이 '산책을'은 체언 '산책'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경우로, '체언+목적격 조사'의 경우에 해당한다.

61

정답 풀이 ㉠에서는 부사 '아주'가 관형사 '옛'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에 따라 관형사나 다른 부사 등도 수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에서는 수 관형사 '세'가 의존 명사 '마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세'는 관형사이며, '셋'이 수사이다

62

정답 풀이 '다르다'는 주어 외에 비교 대상과 관련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에서 '영국의'는 주어인 '날씨는'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서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이 없고, '한국과'는 '다르다'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서 주어('날씨는')와 함께 '다르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된다.

63

정답 풀이 ㉠의 '먹었다'는 주어 '희선이는'과 목적어 '빵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며, ㉡의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64

정답 풀이 ㉢의 '듣는다'는 주어 '그들은' 이외에 목적어 '농담을'과 부사어 '진담으로'를 더 필요로 하므로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올바른 이해이다.

65

정답 풀이 ㉡은 관형어 '이', '한'과 부사어 '구절로'를 생략해도 '글이 살았다'와 같이 온전한 문장이 성립되므로 주어 '글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은 부사어 '바람 때문에'와 '다시'를 생략해도 온전한 문장이 성립되므로 주어 '불씨가'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은 목적어 '책을'이나 부사어 '책상 위에'를 생략하면 온전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일

문장 성분 2 - 부속 성분, 독립 성분

- 1 ○ 2 × 3 ○ 4 × 5 × 6 ○ 7 의존 8 접속
- 9 서술어 10 감탄사 11 관형사 12 부사어 13 어미
- 14 조사 15 ㉢ 16 ㉠ 17 부사어 18 관형어 19 독립어
- 20 부사어 21 관형어 22 우아, 주원아, 응 23 정
- 말, 그런데 24 예쁜, 초등학교 25 관형어 26 형용사
- 27 부사어 28 형용사 29 부사어 30 필수 31 ㉣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 53 조그만, 팔랑팔랑 54 ㉢ ㉠: '많이'는 '먹었더니'를 수식한다.
- ㉡: '과연'은 문장 '이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전체를 수식한다.
- ㉢: '방금'은 '지나갔어요'를, '매우'는 '빨리'를, '빨리'는 '지나갔어요'를 수식한다. 55 ㉠: '엄마와', ㉡: '신조로', ㉢: '차에'
- 56 ㉡ 57 ㉤ 58 ㉠ 59 ㉤ 60 ㉡ 61 ㉣
- 62 ㉣ 63 ㉡ 64 ㉣ 65 ㉠

31

정답 풀이 '정말'은 부사어이다.

32

정답 풀이 '그녀의'는 관형어이다.

33

정답 풀이 '어디로'는 부사어이다.

34

정답 풀이 관형어는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형태로만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립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35

정답 풀이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되고, 부사도 그대로 부사어가 된다.

36

정답 풀이 '나에게'는 서술어 '주셨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37

정답 풀이 ㉠: 관형사, ㉡: 관형사,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것이다.

38

정답 풀이 '너'는 주어이다. 나머지는 독립어이다.

39

정답 풀이 성분 부사어는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하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문장 부사어이다.

40

정답 풀이 '답다'는 용언인데 관형어는 용언을 꾸밀 수 없다. ①의 빈칸에는 부사어가 들어갈 수 있다.

41

정답 풀이 ㄱ.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ㄴ.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나,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다른 부사, 관형사 등을 수식할 수 있고 간혹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42

정답 풀이 '오직'은 서술어 '열중했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⑤ '및'은 '그리고', '그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43

정답 풀이 ㉢은 관형어이다. 나머지는 부사어이다.

44

정답 풀이 ㉢과 ㉣을 통해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이지 않고도 체언만으로 관형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정답 풀이 '바로'는 뒤에 있는 체언 '오늘'을 꾸민다.

46

정답 풀이 ㉦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이고, ㉣는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관형사절로서의 관형어이다. 부사어와 관형어는 공통적으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며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또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47

정답 풀이 관형어와 부사어 모두 체언에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붙어 만들어질 수 있다.

48

정답 풀이 '비록'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어에, '다시'는 서술어 '도전하자'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49

정답 풀이 ㉠의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으로, 용언에 해당하므로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다.

50

정답 풀이 '무슨'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것이다.

51

정답 풀이 ④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52

정답 풀이 '나에게'는 필수적 부사어에, '선생님께서 나에게 건네주신'은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어에, '한'은 의존 명사 '권'을 꾸미는 관형어에 해당한다.

53

정답 풀이 '조그만'(관형어)과 '팔랑팔랑'(부사어)은 부속 성분이다.

54

정답 풀이 ㉠: '많이'는 동사 '먹었더니'를 수식한다. ㉡: '과연'은 문장 '이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전체를 수식한다. ㉢: '방금'은 동사 '지나갔어요'를, '매우'는 부사 '빨리'를, '빨리'는 동사 '지나갔어요'를 수식한다.

55

정답 풀이 ㉠의 '답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주어 외에 '엄마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의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주어, 목적어 외에 '신조로'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늘'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가 아니다. ㉢의 '넣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주어, 목적어 외에 '차에'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항상'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가 아니다.

56

정답 풀이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다. '먹다'는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세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④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하지만 ‘것’과 같은 의존 명사는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57

정답 풀이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라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때 ‘지혜에게’의 성분은 부사어이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여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빌리다’ 역시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나타나므로 ‘친구에게’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④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하다’의 문장 구조로 나타나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하지만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을 방문하다’의 문장 구조를 이루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58

정답 풀이 ‘고등학생이’는 보어이다.

59

정답 풀이 <보기>에는 체언 간의 의미가 동격일 때 생략되는 ‘의’를 보여 준 용례가 없다.

오답 풀이 ③ ‘의’는 인칭 대명사 ‘나, 저, 너’와 결합하면 ‘내, 제, 네’로 축약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60

정답 풀이 ‘나의 짝’에서 ‘나’는 속성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는 ‘관계를 나타내는 뒤의 체언이 앞 체언과 사회적·친족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61

정답 풀이 ‘부디’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인데, 문장에 놓이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곳에 놓일 수 있다.

62

정답 풀이 ㄱ의 ‘확실히’와 ㄴ의 ‘아주’는 모두 ‘수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63

정답 풀이 ①, ③, ④, ⑤에서 밑줄 친 단어의 경우 생략하였을 때 의미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반면, ②의 ‘통나무로’의 경우 ‘만들었다’의 재료를 의미하는 부사어로서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 할 수 없다.

64

정답 풀이 c에서 ‘남자의 친구’는 ‘성별이 남자인 이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를 생략하여 ‘남자 친구’가 되면, ‘성별이 남자인 친구’나 ‘이성 교제의 대상으로서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미가 변화가 생긴다.

65

정답 풀이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와 같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

16일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부사어 12 주어 13 목적어 14 목적어
- 15 부사어 16 주어 17 서술어 18 부사어 19 조사
- 20 ③ 21 ② 22 목적어 23 서술어 24 주어
- 25 노력했다는 점이다. 26 부사어 27 에 28 서술어
- 29 중복 30 부사어 31 ② 32 ② 33 ⑤ 34 ②
- 35 ① 36 ③ 37 ⑤ 38 ④ 39 ⑤ 40 ④ 41 ③
- 42 ③ 43 ④ 44 ④ 45 ⑤ 46 ④ 47 ③ 48 ④
- 49 ① 50 ③ 51 에 내가 그곳에 가기 싫어한 이유는 그곳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52 에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53 에 비록 그가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54 에 저번에 관리 당국에 항의한 게 효과가 있었다. 55 에 그녀는 벽에 못을 직접 박기 위해 이웃에게 망치를 빌렸다. 56 에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57 에 예의가 바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58 ② 59 ③ 60 ④
- 61 ② 62 ① 63 ② 64 ③ 65 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42~145쪽

31

정답 풀이 서술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32

정답 풀이 ‘여간’이라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다.

33

정답 풀이 ‘문제는~문제다’와 같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낯선 장소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4

정답 풀이 ‘기간’과 ‘동안’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표현에 해당한다. ‘환기’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꾼다는 뜻이므로, ‘공기를 환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의미 중복에 해당한다.

35

정답 풀이 ‘모름지기’는 ‘~야 한다’처럼 당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36

정답 풀이 ㉠ ‘난관’은 ‘어려운 고비’의 뜻이므로 ‘어려운’과 의미가 중복된다. ㉡ ‘여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뜻이므로 ‘남은’과 의미가 중복된다. ㉢ ‘숙원’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의 뜻이므로 ‘오랜’과 의미가 중복된다.

37

정답 풀이 ‘차라리 내가 하겠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차라리’는 반드시 부정어와만 호응하는 부사어가 아니다.

38

정답 풀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문제가 있는 문장이 아니고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므로, '절대로'를 '반드시' 따위로 교체해야 한다.

39

정답 풀이 '여간한'은 부정어 앞에 쓰이는 표현이므로,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40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은 접속이 된 '취사나'와 '모닥불은' 중 '모닥불은'이 서술어 '해야 합니다'와 호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은 '눈과'가 '볼겠습니다'와 호응을 이루지 못하며 ㉡은 '유해 가스와'가 '높여 준다'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41

정답 풀이 '빵과'가 '마셨다'와 호응을 이루지 못하는, 즉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누락된 문장이다.

42

정답 풀이 ㉠은 '서로'와 '상의', ㉡은 '새로'와 '신축'에서 의미가 중복되고 있다.

43

정답 풀이 부정 서술어에 호응하는 부사어 '결코'가 긍정문에 쓰여서 생긴 오류에 해당한다.

44

정답 풀이 부사어 '절대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와 호응한다. 첫 번째 문장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절대로'를 '반드시'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고려한 사항은 ㉠이다. 형용사는 현재 시제 어미 '-는'과 결합하지 못한다. '알맞다'는 형용사로 '-는'이 아니라 '-은'과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한 사항은 ㉡이다.

45

정답 풀이 ㉡은 의미를 고려하여 '돋는'을 수식하고 있는 '정성껏'의 위치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성껏'은 서술어 '돋는'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아니다.

46

정답 풀이 '옥의 티'는 '옥에 티'의 잘못이다. ㄷ의 '개밥의 도토리'는 '개밥에 도토리'의 잘못이다.

47

정답 풀이 '과연'과 '반드시'는 모두 긍정적 서술어와 호응한다.

48

정답 풀이 '지배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49

정답 풀이 ㉠ '우리나라는'과 '민족이었다'가 호응을 이루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을 '우리는'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떠나 버리고'의 주어가 생략되어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그녀는' 등의 주어를 밝혀 준 것은 적절하다.

50

정답 풀이 '그리다'의 목적어로 '생각이나 느낌'이 쓰인,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51

정답 풀이 '이유는'이 주어로 올 경우 서술어 '때문이다'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52

정답 풀이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므로, 부사어를 보충해야 한다.

53

정답 풀이 '비록'은 '-더라도', '-느니라도' 등의 양보 어미 혹은 '-지만', '-나'와 같은 역접 어미와 호응한다.

54

정답 풀이 '한테'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쓸 수 있는 조사이므로, 조사를 '에'로 수정해야 한다.

55

정답 풀이 '빌렸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목적어를 보충해야 한다.

56

정답 풀이 부정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사어를 교체한다.

57

정답 풀이 '대하지'와 어울리는 문장 성분을 찾아 넣어야 하므로, 부사어를 보충해야 한다.

수능 도전

본문 146~147쪽

58

정답 풀이 ㉡의 문장에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이론을'이라는 목적어에 자동사인 '발전해'가 연결되는 점이 어색하다.

㉢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다.

㉣ '요점은'과 '알아야 한다'에 주목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 '~ 혼동이나 ~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기억하지 못했다'의 목적어로 '혼동'이 오는 것이 어색하다.

59

정답 풀이 '비록 초보자일수록'을 '비록 초보자일지라도'로 바꾼 것은 부사어 '비록'과 연결 어미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고친 것이며, '작성할 수 있다'를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필수 성분 중 하나인 목적어가 누락되어 그것을 보충한 것이다.

60

정답 풀이 첫째,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



둘째,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가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㉔)
셋째,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되었다. ‘답사하다’라는 동사는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㉕)

61

정답 풀이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킨 것이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보충한 것은 아니다.

62

정답 풀이 ㉑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에’는 목적어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63

정답 풀이 주어인 ‘특징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

64

정답 풀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65

정답 풀이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에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㉑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착한’이 수식하는 말이 ‘너’인지 ‘후배’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중의적 표현이 쓰인 문장의 사례이다.

13~16일 종합 평가 본문 148~151쪽

1 ㉑ 2 ㉔ 3 ㉒ 4 ㉔ 5 ㉔ 6 ㉓ 7 ㉔ 8 ㉓ 9 ㉔
 10 ㉓ 11 ㉒ 12 ㉑: 관형어, 동사, ㉑: 부사어, 형용사 13 ㉔
 14 ㉔ 15 ㉔ 16 ㉑: 감탄문, ㉑: 형용사 17 ㉔ 18 ㉒
 19 ㉒ 20 ㉔

1

정답 풀이 ‘대학생이’는 보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2

정답 풀이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은 주어인 ‘그 애’이다. ‘배우가’는 보어이다.

3

정답 풀이 ㉑의 ‘선물’과 ㉒의 ‘오랜 친구의 딸’은 각 문장의 목적어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4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에서 체언에 호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해원아’는 독립 성분에, 목적어인 ‘음식’을, 서술어인 ‘먹어야’, ‘되지’, 보어인 ‘어른이’는 주성분에, 부사어인 ‘골고루’, ‘나중에’, ‘아빠처럼’, 관형어인 ‘멋진’은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5

정답 풀이 ㉑의 ‘찾는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새 것’에서 ‘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으로, ‘찾는다’가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풀이 ㉓의 ‘고쳤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7

정답 풀이 ‘꼭’은 부사어, ‘내’는 관형어로 둘 다 해당 문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다.

8

정답 풀이 ㉑의 ‘맞는다’와 ㉒의 ‘눅았다’는 자동사이고, ㉑의 ‘밝다’는 형용사로 모두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㉑의 ‘간다’는 주어, 부사어(...에)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㉒의 ‘얻었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9

정답 풀이 ㉑, ㉒은 체언인 ‘소식’을 수식하고 있고, ㉑, ㉒은 용언인 ‘흐른다’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할 때, ㉑, ㉒(관형어)과 ㉑, ㉒(부사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㉑, ㉒은 형용사의 활용형이고, ㉑은 명사 ‘소식’을, ㉒은 동사 ‘흐른다’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품사에 따라 분류할 때, ㉑, ㉒(형용사), ㉑(관형사), ㉒(부사)로 나눌 수 있다.

10

정답 풀이 ‘설마’는 문장 부사어에 해당한다.

11

정답 풀이 문장의 구성에 관형어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의 ‘어찌할’은 문장 구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찌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가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며, 서술어에 따른 것은 아니다.

12

정답 풀이 ㉑은 체언인 ‘얼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고, ‘웃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품사는 동사이다. ㉑은 용언인 ‘아름다웠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고, ‘눈부시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13

정답 풀이 ‘바로’는 서술어인 ‘생일이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체언 ‘오늘’을 수식하고 있다.

14

정답 풀이 서술어 ‘끓였다’는 주어, 목적어와 부사어(...에)를 필요로 한다.

15

정답 풀이 명령문은 주어는 일반적으로 듣는 이이며, 명령문과 달리 청유문의 주어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16

정답 풀이 [예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가 쓰인 감탄문이다. ‘가없어라’는 형용사 어간 ‘가없-’에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한 것이다.

17

정답 풀이 수정한 문장에서 ‘음악’에 대응하는 서술어 ‘듣거나’를 추가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 간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누락되어서이다.

18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누락된 문장으로, ‘이모는 얼굴이 정말 똑같이 닮았다.’에도 ‘닮았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 ‘엄마와’ 등이 누락되어 있다.

19

정답 풀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 ‘믿겨지지’를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수정해야 한다.

20

정답 풀이 ‘거부하기’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거부하기도’ 앞에 ‘운명’을 넣어 주어야 한다.

17일

문장 구조의 짜임과 표현 효과

1 ○ 2 × 3 ○ 4 ○ 5 × 6 내가 좋아하던 친구가 / 전학을 갔다. 7 한 무리의 철새가 / 북쪽으로 날아갔다. 8 아까 밖으로 도망간 사람이 / 분명 범인이야. 9 덩굴장미의 붉은 꽃잎들이 / 흐드러지게 피었다. 10 이 책은 / 중학생인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다. 11 입학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심정은 / 매우 착잡했다. 12 내가 태어난 2002년은 /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이다. 13 대등하게 14 한 15 종속적으로 16 두 17 수식 18 주어부 19 단문 20 복문 21 이어진 22 절 23 무엇이 어찌하다 24 윤찬이가 그린 풍경화가 / 미술 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25 윤찬이가 그린 26 최우수작으로 27 부사격 조사 28 홀문장 29 목적어 30 보어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55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56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54~157쪽

31

정답 풀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면 홀문장,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면 겹문장이다.

32

정답 풀이 연결 어미 ‘-면’으로 이어진 문장, 즉 겹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홀문장이다.

33

정답 풀이 주어(‘나는’)와 서술어(‘갔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겹문장이다.

34

정답 풀이 ‘시험 종료를 알리는’이 ‘종소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35

정답 풀이 주어(‘우리 학교의 역사는’)와 서술어(‘오래되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의 예에 해당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이 안개만’-‘걷히면’, ‘비행기가’-‘출발한다’) 나타나므로 겹문장의 예에 해당한다.

36

정답 풀이 주어(‘그는’)와 서술어(‘밝혔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홀문장에 해당한다.

37

정답 풀이 ‘그런’은 관형사로, 안긴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정답 풀이 ‘앞발이 짧다’가 ‘토끼는’이라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즉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겹문장)에 해당한다.

39

정답 풀이 ‘봄과 같이’는 서술어 ‘포근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온 가족이(주어)-모여(서술어)와 ‘온 가족이(주어)-한다(서술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 된다.

40

정답 풀이 ㉠ 주어(나는)-서술어(먹었다), ㉡ 주어(개나리)-서술어(터뜨리고 있었다)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에 해당한다. 참고로, ‘-고 있다’와 같은 보조 용언 구성은 하나의 서술어이다.

41

정답 풀이 의도의 연결 어미 ‘-려고’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42

정답 풀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한’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43

정답 풀이 ㉠ 주어(저 사람은)-서술어(아니다)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에 해당한다. ㉡ ‘웅변은 은이다’와 ‘침묵은 금이다’가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 ‘마당이 아주 넓다’가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 ㉣ ‘그 책을 빌려주겠다고’가 인용절로 안겨 있는 문장, ㉤ ‘올해는 우리 학교가 우승할’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44

정답 풀이 ㉠의 서술어 '바라다'의 목적어는 '그 친구가 학급 회장이 되기를'이다. ㉡에는 '피아노를', '노래를'이 모두 목적어이다.

45

정답 풀이 주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책은'이다.

46

정답 풀이 '저 학생은 /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와 같이 나누어야 한다.

47

정답 풀이 앞 절이 뒤 절에 종속적인 의미 관계(조건)를 이루고 있다.

48

정답 풀이 주어('세 살 버릇이')와 서술어('간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에 해당한다.

49

정답 풀이 조건의 연결 어미 '-으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50

정답 풀이 ㉠ '여름에는 비가 내린다'와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가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앞 절인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이 뒤 절에 종속적인 의미 관계(조건)를 이루고 있는 이어진문장이다. ㉢ '겨울이 오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 ㉣ '하늘에 떠가는'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 ㉤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고'가 인용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51

정답 풀이 '국어 잘하는'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52

정답 풀이 주어('학생들이')와 서술어('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겹문장의 예로 볼 수 없다.

53

정답 풀이 서술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로, 관형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4

정답 풀이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나는'과 서술어 '좋아한다'가 한 번 나타나고, '따뜻한'은 관형사절이므로 여기에서 생략된 주어 '봄은'과 서술어 '따뜻하다'의 관계가 한 번 더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에 해당한다.

55

정답 풀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 '가족은'과 서술어 '좋아한다'가 한 번 나타나고, '우리', '사계절 중에', '가장'은 모두 절로 구성된 수식어들이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더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에 해당한다.

56

정답 풀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 '당번은'과 서술어 '돌아온다'가 한 번 나타나고,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두 절로 구성된 수식어들이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더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에 해당한다.

수능 도전

본문 158~159쪽

57

정답 풀이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연결 어미 '-면'은 '날이 추워지다.'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58

정답 풀이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관형사절로 안겨 '날씨'를 꾸며 주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때 안긴절의 주어 '날씨가'는 생략된다.

59

정답 풀이 (나)의 ㉠은 '첫차는 4시 30분에 출발한다.'는 홀문장이 '첫차'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므로 관형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60

정답 풀이 ㉠은 '나는'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므로 '인용절+서술어'의 문장 구조로 볼 수 있다. 또 '소포가'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들었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와 같은 분석은 옳지 않다. ㉢은 '소포가 도착했다고'와 '들었다'로 분석해야 한다.

61

정답 풀이 ㄱ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누나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마음'이다.

62

정답 풀이 관형사절 '그가 여행을 간'과 이 관형사절이 안긴 '그녀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문장에는 서로 중복된 단어가 없다.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 없이 관형사절이 안은문장의 체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63

정답 풀이 '민수는 성격이 좋은 학생이다.'는 '성격이 좋은'이라는 관형사절(안긴문장)을 포함한 안은문장이다.

64

정답 풀이 (나)와 (다)에서 ㉠과 ㉡은 각각 전체 문장의 관형어와 목적어 기능을 하며 안겨 있다.

65

정답 풀이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르. 단풍잎이 흔들린다.'에 'ㄱ. 바람이 분다.'가 관형사절로 안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장의 짜임 1 - 이어진문장

18일

- 1 ○ 2 ○ 3 ○ 4 ○ 5 × 6 ○ 7 대등 8 대등
 9 대등 10 종속 11 대등 12 종속 13 종속 14 종속
 15 종속 16 ④ 17 ① 18 앞 19 주절 20 종속절
 21 생략 22 나열 23 조건 24 대조 25 대조 26 원인
 27 양보 28 의도 29 배경 30 나열 31 ④ 32 ①
 33 ⑤ 34 ③ 35 ③ 36 ② 37 ② 38 ② 39 ③
 40 ⑤ 41 ④ 42 ④ 43 ⑤ 44 ⑤ 45 ① 46 ④
 47 ② 48 ② 49 ⑤ 50 ② 51 ⑤ 52 ② 53 대등
 하게 이어진 문장. ㉔ <보기>의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54 ㉔ 언니
 는 다이어트를 해서 간식을 잘 안 먹는다. / 언니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간식을 잘 안 먹는다. 등 55 -면, 조건 56 -르자라
 도, 양보 57 -다가, 원인 58 ② 59 ⑤ 60 ④ 61 ⑤
 62 ② 63 ⑤ 64 ① 65 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62~165쪽

31

정답 풀이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32

정답 풀이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33

정답 풀이 의도의 연결 어미 '-려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34

정답 풀이 '-수록'은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35

정답 풀이 ㉠ 원인, ㉢ 배경, ㉤ 양보의 연결 어미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36

정답 풀이 앞 절이 뒤 절의 안으로 이동하면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라는 문장이 되어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37

정답 풀이 '-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때는 '-나', '-지만' 등을 쓴다.

38

정답 풀이 ㉠은 ㉢에 대한 배경 상황에 해당한다. '-는데'로 연결된 앞 절('밥을 먹고 있었다')이 뒤 절('손님이 찾아왔다')에 대해 배경 상황의 의미를 지니므로 적절하다.

39

정답 풀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과 뒤 절은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앞 절이 뒤 절의 조건, 의도,

배경, 양보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40

정답 풀이 '-면'은 가정의 의미로, '-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로 문장과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성 어미에 대한 설명이다.

41

정답 풀이 나열의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42

정답 풀이 '-자'는 앞 절이 뒤 절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양보·인정'이 아니라 '선행 사건 표현'에 해당한다.

43

정답 풀이 '주원이는 자고 있다.'와 '윤우는 자고 있다.'의 두 문장이 '와'에 의해 결합된 문장이다. 나머지 문장은 문장을 나눌 수 없는 용례에 해당한다.

44

정답 풀이 앞 절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인 '-지만'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45

정답 풀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46

정답 풀이 '고의라기보다는'의 '보다'는 연결 어미가 아니라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47

정답 풀이 '대조'가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지닌다.

48

정답 풀이 '-아야'는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49

정답 풀이 ㉢ '-나'(대조), ㉤ '-고'(나열), ㉥ '-거나'(선택)의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50

정답 풀이 '나는 어제 밤을 잤다.'와 '나는 매우 졸렸다.'는 의미상 인과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어제 밤을 새서 매우 졸렸다.'와 같이 이어 써야 자연스럽다.

51

정답 풀이 '물이 너무 많다', '고기가 없다', '사람이 너무 살피다', '(이(사람)가) 빠르다', '(따르는) 이가 없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모두 다섯 번 나타나 있다.

52

정답 풀이 '이곳을'은 '나'가 찾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 절의 '해돋이를'과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의 경우 앞 절과 동일한 표현인 '나는'이 뒤 절에서 생략되었다.



53

정답 풀이 <보기>의 문장은 앞 절인 ‘아내는 여행을 좋아한다.’와 뒤 절인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지만’은 뒤 절에 앞 절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짐을 나타낸다.

54

정답 풀이 연결 어미 ‘-어서’, ‘-느라고’ 등을 사용하여 원인의 의미를 갖는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 앞 절과 뒤 절에 동일한 표현인 ‘언니는’이 중복되므로, ‘언니는’을 뒤 절에서 생략할 수 있다.

55

정답 풀이 ‘-면’은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조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56

정답 풀이 ‘-르지라도’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양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57

정답 풀이 ‘-다가’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등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원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61

정답 풀이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는 두 개의 홑문장, 즉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와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쓰인 ‘과’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서술어가 ‘사귀어 왔다’ 하나이므로 ⑤는 이어진문장이 아닌 홑문장이다.

62

정답 풀이 ‘-(으)면서’는 ㄱ처럼 평서문(불렀다)과도 어울리고, ㄴ처럼 명령문(공부해라), 청유문(공부하자), 의문문(공부할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린다.

63

정답 풀이 앞 절인 ‘갑자기 문이 열리다.’와 뒤 절인 ‘사람들이 놀랐다.’가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지며,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원인’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64

정답 풀이 연결 어미 ‘-으면’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낸다.

65

정답 풀이 ㄷ의 경우 어미 앞의 ‘빌리다’의 주어도 ‘동수’이고, 어미 뒤의 ‘예약을 하다.’의 주어도 ‘동수’이다. ㄹ의 경우 어미 앞의 ‘만나다’의 주어도 ‘영희’이고, 어미 뒤의 ‘돌아가다’의 주어도 영희이다. 즉 ㄷ과 ㄹ의 두 문장은 어미 앞뒤의 주어가 모두 같은 문장들이다. ⑤에 따른다면,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면 ‘-리’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리’가 쓰인 ㄱ, ㄴ 두 문장 역시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므로 ⑤의 선택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수능 도전

본문 166~167쪽

58

정답 풀이 ㄱ, ㄷ은 ‘암벽 등반은 재미있고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미있지만 힘들다.’라고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암벽 등반은 재미있어서 힘들다.’라고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에 변화가 생기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9

정답 풀이 ⑤의 경우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라는 문장이 어색하기 때문에 ‘-(으)며’를 ‘-(으)면서’로 교체할 수 없고, 앞뒤 문장의 주어 ‘일부는’이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⑤의 ‘-(으)며’는 <보기>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에서처럼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하는 의미를 지닌다.

60

정답 풀이 연결 어미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ㄷ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선어말 어미 ‘-었/았-’이나 ‘-겠-’과는 결합할 수 없으나, 선어말 어미 ‘-(으)시-’와는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짜임 2 - 안은문장

19일

- 1 ○ 2 ○ 3 × 4 × 5 ○ 6 ○ 7 서술절 8 관형사절 9 부사절 10 서술절 11 부사절 12 관형사절 13 명사절 14 명사절 15 관형사절 16 인용절 17 부사절 18 관형사절 19 인용절 20 안은 21 안긴 22 주어 23 어미 24 서술절 25 직접 26 무엇이 어찌하다 27 대학을 졸업한 동주는 /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28 대학을 졸업한, 유학을 가기 29 부사어 30 관형어 31 ① 32 ① 33 ⑤ 34 ③ 35 ② 36 ③ 37 ③ 38 ⑤ 39 ③ 40 ④ 41 ② 42 ④ 43 ⑤ 44 ③ 45 ① 46 ② 47 ⑤ 48 ⑤ 49 ④ 50 ④ 51 ④ 52 아침이 오기, 명사절 53 내가 좋아하는, 관형사절 54 재주가 많으시다, 서술절 55 (1) 누나가 나에게 “날씨가 좋다.”라고 말했다. (2) 누나가 나에게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56 ④ 57 ② 58 ③ 59 ② 60 ④ 61 ④ 62 ② 63 ⑤ 64 ③ 65 ③

31

정답 풀이 안은문장은 다른 문장(안긴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포함한 문장이다.

32

정답 풀이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33

정답 풀이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34

정답 풀이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35

정답 풀이 '지나가는'은 '지나가-'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사절로, '사람들'을 꾸미고 있다.

36

정답 풀이 '그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했다.'(직접 인용) 또는 '그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간접 인용)와 같이 이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37

정답 풀이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절을 안고 있다.

38

정답 풀이 주어('저 사람의 아들이')에 대한 서술어 '성악가이다'는 서술절이 아니다.

39

정답 풀이 <보기>의 안긴문장 '밖에 나가기'는 명사절이다. ㉓의 '그가 착하다'는 관형사절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절이다.

40

정답 풀이 '매일'은 서술어 '기다린다'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41

정답 풀이 ㉑은 '기분 나쁘게', ㉒은 '그녀가 지나가도록'의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42

정답 풀이 직접 인용이므로 '라고'가 붙어야 한다.

43

정답 풀이 인용절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44

정답 풀이 ㉑을 간접 인용하면 '반장은 선생님께 질문이 있다고 했다.'가 된다. 이를 통해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결합하는 조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

정답 풀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가 ㉑에서 '울음을 터뜨린'으로 안겨 있다. 즉 ㉑이 ㉒에 관형사절로 안긴 것이고 그 과정에서 ㉑의 주어인 '아기가'가 생략되었다.

46

정답 풀이 '우산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47

정답 풀이 '눈이 참 예쁘다' 뒤에 조사 '고'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48

정답 풀이 문장의 주어('그 선행의 주인공이 수지였음')에 대한 서술어는 '드러났다'이다. '그 선행의 주인공이 수지였음'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이다.

49

정답 풀이 ㉑의 안긴문장은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다.'로 '영화'를 수식한다. 따라서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명사인 '영화'는 안긴문장에 원래 있던 목적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㉒의 안긴문장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로 '사실'을 수식하지만, '사실'이 안긴문장에 원래 있던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0

정답 풀이 '친구가'는 전체 문장(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의 주어이고, '이 식당은'은 인용절 '이 식당은 불고기가 맛있다.'의 주어이다. 서술절('불고기가 맛있다.') 속의 주어는 '불고기가'이다.

51

정답 풀이 명사절('공부에 전념하기')이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52

정답 풀이 '아침이 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절로,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한다.

53

정답 풀이 '내가 좋아하-'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사절로, 뒤에 오는 명사 '음식'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기능한다.

54

정답 풀이 '재주가 많으시다.' 전체가 주어 '아버지께서는'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55

정답 풀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를, 간접 인용할 때는 '고'를 붙인다.

56

정답 풀이 ㉑의 안긴문장 '소리도 없이'는 용언 '나갔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㉒의 안긴문장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은 체언 '수박'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오답 풀이 ㉑ ㉒에서는 '소리도'가 주어이다.

㉓ ㉔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반면 ㉑은 목적어인 '수박'이 생략되어 있다.



57

정답 풀이 ㉠은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여 서술어 '알리며'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58

정답 풀이 ㉠ '비가 오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 '집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어린아이들은) 병원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이때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 ㉢은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과 ㉣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절이다.

59

정답 풀이 '이가 시리도록'은 원래 '이가 시리다.'라는 문장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서술어 '차가웠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절로 볼 수 있다.

60

정답 풀이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에서 관형사절 '꽃이 활짝 핀'이 '봄'을 수식하고 있고, 명사절 '봄이 오기'가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는 관형사절 속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61

정답 풀이 ㉢에는 '내가 늘 쉬-'가 전성 어미 '-던'을 통해 관형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62

정답 풀이 ㉠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사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또한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사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에는 ㉢과 달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인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에 안겨 있는 문장인 '따뜻한'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안겨 있는 문장인 '그가 시장에서 산'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63

정답 풀이 ㉣에서 '장애물 달리기'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은 없다.

오답 풀이 ㉢ ㉣에서 '부상을 당한'은 '선수'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고, '부상을 당한'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 ㉣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많이'는 '오르기'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64

정답 풀이 ㉢의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이고 안긴

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별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며,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아니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65

정답 풀이 안긴문장인 '말도 없이'는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가 버렸다'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절이다. 따라서 부사어인 '학교에'를 수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명사절인 '공원에 가기'의 주어는 '영수는'으로 안은문장과 동일하다.

17~19일 종합 평가

본문 176~179쪽

- 1 ㉢ 2 ㉣ 3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4 ㉠: 우리 어머니께서는 / 다방면에 재주가 많으시다. ㉡ 추운 겨울은 / 여행을 가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우리, ㉡: 오늘, ㉢: 있자고

1

정답 풀이 '그가 내게 보낸 선물'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들었다'의 주어가 될 수 없다. <보기>의 문장은 '나는'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2

정답 풀이 '그를 만날'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3

정답 풀이 '윗물이 맑다.'와 '아랫물이 맑다.'라는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4

정답 풀이 ㉠: 주어부(주어가 되는 말과 그것을 꾸며 주는 부분)는 '우리 어머니께서는'이고, 서술부(주어부를 설명하는 부분)는 '다방면에 재주가 많으시다.'이다. ㉡: 주어부는 '추운 겨울은'이고, 보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서술부는 '여행을 가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다.'이다.

5

정답 풀이 ㉢의 생략된 주어는 '꽃 피는 계절을 좋아하'는 주체, 즉 '나'이므로, ㉠의 주어인 '꽃'과 다르다.

6

정답 풀이 ㉠의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맞으나, ㉡의 '없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의 부사어는 '혼자'와 '다'이고, ㉡의 관형어는 '그가 좋은'과 '그가 좋은 사람임을 모르'는이다.

7

정답 풀이 ㉠ 홀문장, ㉡ '-는지'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홀문장(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인 '반해 버리고 말았다'는 하나의 서술어이다.)

8

정답 풀이 ㉠ 주어(말이)-서술어(된다), ㉡ 주어(생략됨.)-서술어(깎는다)

9

정답 풀이 '그는 어렵게 산다.'와 '그는 얼굴에 그늘이 없다.'는 의미상 대조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는 어렵게 살지만 얼굴에 그늘이 없다.'와 같이 연결해야 자연스럽다.

10

정답 풀이 대조의 연결 어미 '-나'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1

정답 풀이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나는'으로 같아서 뒤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12

정답 풀이 ㉠과 ㉡의 '-나'와 '-지만'은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의 '-고'는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다.

13

정답 풀이 나열의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이냐'는 조사이다.

14

정답 풀이 '나는 어제 피자를 먹다 남겼다.'를 통해 '피자'를 먹은 것이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은 내가 어제 먹던 피자이다.'와 같이 연결해야 자연스럽다.

15

정답 풀이 안은문장의 주어는 '선생님은'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마음이'이다.

16

정답 풀이 <보기>의 안긴문장 '겨울이 오기'는 명사절이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의 '대학에 가기'는 명사절이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17

정답 풀이 '도훈이와 아인이가 남매이다.'가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에 관형사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18

정답 풀이 안은문장에는 부사어 '계속'이 있고, 안긴문장 '내가 노래를 부르기'에는 부사어가 없다.

19

정답 풀이 '구상할'의 '-르'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나,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용언의 관형사형을 만드는 전성 어미이다.
오답 풀이 ㉤ '예정어-(어간)+-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ㅂ니다(종결 어미)'로 분석된다.

20

정답 풀이 ㉠ 직접 인용에서 인용된 발화는 국어 선생님이 말한 것이므로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너희'가 쓰였지만,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일인칭 대명사 '우리'가 되어야 한다. ㉡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 즉 '오늘'이 되어야 한다.

㉢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서 인용 조사가 '고'가 되어야 한다.

20일 담화의 개념과 특징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어 14 -니 15 -구
 나 16 ㉠ 17 ㉢ 18 ㉡ 19 지시 20 높임 21 어미
 22 맥락 23 통일성 24 응집성 25 이 26 그 27 이
 28 저 29 저 30 그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우산을 가지고 나가
 라는 의미 54 ㉢ 빨래를 걷어야겠다는 의미 55 ㉢ 지금 축
 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 56 ㉢ 부침개를 같이 먹으러 가자
 는 의미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82~186쪽

31

정답 풀이 몸짓은 준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32

정답 풀이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용 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대용 표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고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3

정답 풀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 담화에, 광고는 호소 담화에, 판결문은 선언 담화에 속한다.

34

정답 풀이 '있겠지'는 추측의 의미 또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의미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35

정답 풀이 할머니에게 엄마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손녀를 의식하여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드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손자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를 오히려 낮추고 있다.

36

정답 풀이 학생이 지각한 상황이므로, '왜 이렇게 일찍 왔니?'는 학생이 일찍 온 이유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책망을 방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37

정답 풀이 ㉢의 '여기'는 맥락상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38

정답 풀이 기상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날씨가 덥네.'



라고 대답한 것에는 대기의 온도가 높다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정답 풀이 ㉠, ㉡은 B가 가리킨,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하고, ㉢은 A가 B가 가리킨 옷을 바라보며 한 말이므로 ㉠, ㉡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오답 풀이 ㉠, ㉢은 B가 입은 옷(=A가 칭찬한 옷)을 의미한다. ㉡은 B가 어제 입은 옷(=A가 '저 옷이랑 비슷한 옷'이라고 표현한 옷)을 의미한다.

40

정답 풀이 A는 (1)에서 '-시-'를 사용하고 있으나 B가 아니라 '어머님'(=B의 어머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에서는 '요'(=누구이-지-요)를 사용하여 B에 대해 두루높임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B는 사적인 (1)에서는 '나', 해체를 사용하나 공식적인 자리인 (2)에서는 '저'를 사용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사인 A를 높이고 있다.

41

정답 풀이 문장 종결 표현은 청유문에 해당하고, 실제 발화의 의도 역시 제안, 청유이므로 간접 발화가 아니라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42

정답 풀이 ㉠의 법원 판결문은 선언 담화에, ㉡의 신문 기사는 정보 제공 담화에 해당한다.

43

정답 풀이 ㉠은 언니가 가리키고 있는 옷장의 위치를, ㉡은 언니가 찾고 있는 옷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44

정답 풀이 ㉡를 미지칭(未知稱)이라고 하고, ㉢를 부정칭(不定稱)이라고 한다. ㉠, ㉡은 부정칭에, ㉢, ㉣은 미지칭에 해당한다. ㉠의 '어디'는 어떤 장소를 꼭 집어 가리키지 않는 데 쓰였으므로, ㉡의 '무엇'은 특정한 음식을 지정하여 가리키지 않는 데 쓰였으므로 부정칭에 해당한다. ㉢의 '누구'는 초인종을 울린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기 위한 말이므로, ㉣의 '무엇'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말이므로 미지칭에 해당한다.

45

정답 풀이 '배고프지 않아?'라는 동일한 발화라도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46

정답 풀이 종결 표현의 형식이 의문형이고, 발화 의도 역시 상품의 가격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종결 표현의 형식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의 예에 해당한다.

47

정답 풀이 '지금 몇 시야?'는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를 책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려 해석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말뜻 그대로 받아들여 반응하였다.

48

정답 풀이 '왜냐하면'은 '왜 그러나 하면'의 뜻으로 쓰이는 접속 부사로 주로 '때문이다'와 호응한다.

49

정답 풀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관계에 따라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구별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지시 표현이 상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지는 않는다.

50

정답 풀이 '아주'는 '귀한'을 꾸며 주는 성분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면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문장 부사로 볼 수 없다.

51

정답 풀이 함의서는 약속 담화에 속한다.

52

정답 풀이 '거기'는 발화 내용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A와 B가 공유하는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53~56

정답 풀이 "밖에 비 와."라는 동일한 발화의 의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추측될 수 있다.

수능 도전 본문 187~189쪽

57

정답 풀이 ㉠은 '원장님'의 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은 '학생'이 자신의 말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8

정답 풀이 ㉢은 화자인 '효준'과 청자인 '유로'에게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진열대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은 화자인 '유로'와 청자인 '효준'이 있는 장소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는 □□ 매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59

정답 풀이 ㉡은 지원에 앞서 원세의 말에 나온 '제출할 작품'을 지칭하는 지시어이므로 ㉡은 지원이 이미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원세의 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60

정답 풀이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요.'라는 평서문을 사용해 상대방인 엄마에게 '제가 배가 고파니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요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61

정답 풀이 '잠깐,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는 의문문이지만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B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A의 말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안경을 찾으면서 하는 혼잣말이다.

62

정답 풀이 <보기>의 대화 중 ㉠은 대화 참여자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의 '우리' 역시 '수빈'을 포함한 대화 참여자 세 명을 모두 가리킨다.

63

정답 풀이 ㉠은 물병 두 개를, ㉡은 '물병'을 가리킨다.

64

정답 풀이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지만 ㉡은 청자인 아들을 가리킨다.

65

정답 풀이 ㉠은 딸의 발화 이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의 내용을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는 대용 표현이다.

21일 **한글의 창제 원리**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L 13 ㄹ 14 □ 15 ㅈ
 16 △ 17 ㅎ 18 — 19 ㅊ 20 ㅌ 21 훈민정음
 22 가획 23 합성 24 병서 25 순경음 26 이체자
 27 · 28 ㅍ 29 □ 30 ㄹ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 ㉺: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면 획을 더한 가획의 원리 56 ㉻ 'ㅂ'과 'ㄷ'은 자판에 없는 자음이지만, 각각 'ㅁ'과 'ㄴ'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의해 입력할 수 있다. 57 ㉼ 58 ㉽ 59 ㉾ 60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92~195쪽

31

정답 풀이 'ㅊ'는 'ㅊ'와 '·'를 합하여 만들었다.

32

정답 풀이 병서한 자음자는 자음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훈민정음'은 세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명칭이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해 놓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33

정답 풀이 한글의 모음자가 소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자 모양을 갖춘 것은 아니다.

34

정답 풀이 한글이 적은 수의 자모로도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인 것은 맞지만 어떤 외국어의 음운이라도 다 변별하여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은 한글로 표기하기 어렵다.

35

정답 풀이 ㉠의 자음 자판 중 'ㅅㅎ', 'ㅇㅁ'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배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 자음 자판에는 훈민정음 기본자가 아닌 'ㄹ'도 포함되어 있다.

36

정답 풀이 <보기>에서 중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37

정답 풀이 한글 자음은 소리가 더 세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38

정답 풀이 재출자 'ㅊ, ㅋ, ㆁ, ㆁ'는 초출자 'ㅊ, ㅋ, ㆁ, ㆁ'에 '·'를 합하여 만든 것이다.

39

정답 풀이 'ㅈ, ㅊ'은 기본자인 'ㅈ'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거세다.

40

정답 풀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기본자/초출자/재출자/합용자'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은 기본자 'ㄴ'의 이체자이므로 'ㄹ'이 들어가야 한다. 참고로, 'ㅌ'은 'ㄴ'의 가획자이기도 하므로 'ㄷ' 옆 칸에 들어가야 한다.

42

정답 풀이 'ㄱ, ㅊ, ㆁ'는 기본자 'ㄱ', 'ㅊ'에 '·'를 한 번 합하여 만든 자이고, 'ㆁ, ㆁ, ㆁ'는 거기에 '·'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자이다.

43

정답 풀이 <보기>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기록으로, 제자해는 한글 자음은 소리가 더 세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44

정답 풀이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므로 기본자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풀이 ㉠은 모음 재출자이므로 'ㅊ, ㅋ, ㆁ, ㆁ'가 들어갈 수 없다. 'ㅊ'는 재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정답 풀이 이체자는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를 반영한 글자가 아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를 반영한 것은 가획자이다.

47

정답 풀이 'ㄱ'은 어금닛소리(아음)의 기본자이다.

48

정답 풀이 상형이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는 것인데, 모음 기본자 '·',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49

정답 풀이 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ㅇ'이다.



50

정답 풀이 가획자 ‘ㄱ’의 위치를 통해 ‘ㄱ’이 들어갈 위치는 ㉠임을 알 수 있다.

51

정답 풀이 ㉠은 동일한 초성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표기 방식이므로 ‘쓰’는 해당하고 ‘쑤’이나 ‘밭처럼 서로 다른 초성자를 나란히 붙여 쓴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 서로 다른 초성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표기 방식이므로 ‘밭’과 ‘쑤’는 해당하고 ‘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은 두 개의 초성자를 세로로 붙여 적는 방식이므로 ‘밭’처럼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적은 것이 해당한다.

52

정답 풀이 ‘ㄹ’만 이체자이고, 나머지는 가획자이다.

53

정답 풀이 ‘ㅈ’만 재출자이고, 나머지는 합용자이다.

54

정답 풀이 이체자는 기본자를 활용해서 만들었지만 다른 가획자처럼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한 것이 아니므로, 이체자 ‘ㄷ’이 기본자 ‘ㅌ’보다 소리의 세기가 강하다고 할 수 없다.

55

정답 풀이 ㉠: 제시된 자음은 한글 기본자로,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제시된 자음은 한글 가획자로, 기본자에 소리가 더 세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56

정답 풀이 ‘ㅂ’, ‘ㄷ’은 자판에 없는 자음이지만 ‘ㄹ-획추가’, ‘ㄴ-획추가’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수능 도전

본문 196쪽

57

정답 풀이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이[齒]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잇소리 ‘ㅌ’이며, 여기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가획자 ‘ㅊ, ㅋ’이다. 중성 중에서 초출자 ‘ㅇ’에 기본자 ‘ㅇ’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ㅇ’이다.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ㅌ’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쫄’이다.

58

정답 풀이 <보기>의 설명을 보면 불청불탁을 가리키는 문자에 획을 더하여 전청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획을 더하여 차청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든다. 획을 더할수록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세기가 세어진다. 이를 통해 불청불탁에 속하는 소리가 제일 약하고 차청에 속하는 소리가 가장 강함을 알 수 있다.

59

정답 풀이 <예사소리>-<거센소리>의 관계를 <A>-<A에 획

추가>로 표현한 것을 통해 ‘나’에 제시된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사소리>-<된소리>의 관계를 <A>-<AA>로 표현한 것에서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병서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60

정답 풀이 (가)는 순경음에 대한 설명으로, 입술소리(순음) 아래 ‘ㅇ’을 연서하여 표시한 음인 ‘ㅁ, ㅂ, ㅃ, 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수비’의 ‘ㅂ’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성 글자를 나란히 쓰는 초성 합용 병서에 대한 설명으로, ‘뜨르미니라’의 ‘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

22일

- 1 ○ 2 ○ 3 × 4 × 5 북한 6 남한 7 남한
 - 8 북한 9 남한 10 남한 11 ⑤ 12 ③ 13 ⑤ 14 ④
 - 15 ㄴ 16 ㄹ 17 ㄴ 18 외래어 19 고유어 20 표준어
 - 21 북한 22 사이시옷 23 의존 24 분단 25 같은
 - 26 교류 27 말다듬기 28 지역적 29 이념 30 어휘
 -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③ 37 ⑤
 - 38 ④ 39 ⑤ 40 ④ 41 ① 42 ④ 43 ③ 44 ⑤
 - 45 ① 46 ③ 47 ④ 48 ① 49 ① 50 ④ 51 ③
 - 52 ⑤ 53 ⑤ 54 ㉠ ‘연도’의 ‘연’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므로
-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55 ㉡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같기 때문이다. 56 ㉢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57 ㉣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방언이 각각의 표준말로 정착되었으며, 서로 다른 정책으로 말다듬기를 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생활상이 반영된 어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58 ③ 59 ③ 60 ④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199~202쪽

31

정답 풀이 문장 구조 등 문법은 남북한에 큰 차이가 없다. 남북한 언어는 어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32

정답 풀이 남북한은 분단 이전까지 한 민족으로 같은 말과 글을 사용했으나, 분단 이후 교류가 한동안 없어 언어의 이질화가 가속되었다.

33

정답 풀이 남한은 말다듬기를 꾸준히 진행하며 말다듬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말다듬기의 결과 널리 사용되는 말이 많다.

34

정답 풀이 천리마운동은 외래어나 한자어를 다듬은 말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특징이 드러난 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살림집’(주택), ‘무더기비’(호우), ‘나뉘웃’(투피스), ‘젓먹임칸’(수유실)

35

정답 풀이 남북한 모두 필수적인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등)가 일어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예컨대 '나무가지'의 표준 발음의 경우, [나무까지]가 원칙이고 [나무까지]가 허용이다.

36

정답 풀이 '독립'의 북한 표준 발음은 [동닙]이다.

37

정답 풀이 일부 형용사의 연결형에 '나다'가 이어져 '짜릿해나다, 끈끈해나다' 등과 같이 쓰이는 것은 북한어의 특성이다.

오답 풀이 ③, ④ 북한어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와 같이 쓴다.

38

정답 풀이 남북한의 표기 규범은 모두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조화시킨 규범이다. 남북한 모두 '꽃+이'를 '꼬치'가 아니라 '꽃이'로 적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표기 규범에서 표음주의가 표의주의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북한은 의존 명사, 보조 용언을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39

정답 풀이 말다듬기 사업은 외래어 남용이나 번역투 표현 등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 문제와는 관계없이 적절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40

정답 풀이 '날래'는 북한식 표현이기는 하지만, 외래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41

정답 풀이 '아흐레같이'는 외래어를 한자어로 고친 어휘가 아니며 고유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③ 영어 외래어가 많은 남한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어 외래어가 많다.

④, ⑤ 북한의 '아버이', '세포'는 북한 사회의 정치 이념과 제도가 반영된 단어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뜻과 다르다.

42

정답 풀이 '소행'은 남한과 북한에서 형태나 발음이 같은 단어이지만,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서로 달리 사용된다.

43

정답 풀이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므로 예를 들어 '女'가 어두에 올 때 '여자'로 표기하고,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녀자'로 표기한다. 그러나 어두가 아닌 둘째 음절부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북한 모두 '소녀'로 표기한다.

44

정답 풀이 '일 없어' - '괘찮아', '꽝꽝이' - '허꽝이', '억이 막히다' - '기가 막히다' 등에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나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45

정답 풀이 '강냉이'는 북한 지역에서 '옥수수'를 가리키는 말로 남한에서도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한 북한의 독특한 어휘로는 볼 수 없다.

46

정답 풀이 남한에서는 잘못을 했을 때 상대가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기>의 서술을 통해 남한은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47

정답 풀이 전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말도 표면적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48

정답 풀이 '녀, 뇨, 뉴, 니'가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는 것은 'ㄴ'이 'ㅇ'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ㄴ'이 탈락한 것이다.

49

정답 풀이 '동무'는 남북한에서 형태, 발음이 모두 같으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예이다.

50

정답 풀이 정부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51

정답 풀이 '초+불→[초뽕]'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발음을 인정한다. 다만,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표기하지 않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④ 남한에서는 어미 '-어'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로 발음하되 앞 음절의 모음에 따라 반모음이 첨가된 [여] 발음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된 [여]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표기에도 반영하고 있다.

52

정답 풀이 '남녀'에서 '녀'는 어두가 아닌 둘째 음절에 오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다.

53

정답 풀이 ㉠ 표준어는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다. ㉡ 문화어는 북한의 공용어이다. ㉢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문화어는 '근로 인민 대중이 사용하는 현대 평양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정답 풀이 '졸업 연도'는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쓴다. 이를 통해 '졸업 연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졸업'과 '연도'의 두 단어가 나란히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연도(年度)'는 '앞말이 이루어진 특정한 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따라서 '연도'의 '연'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55

정답 풀이 남북한은 분단 이전까지 한 민족으로 오랫동안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해 왔고, 지금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56

정답 풀이 북한은 남한에 비해 외래어를 고유어로 고쳐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57

정답 풀이 남한의 서울말, 북한의 평양말처럼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이 각각의 표준말로 정착되었으며, 서로 다른 정책으로 말다듬기를 하고,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이나 사회 제도, 생활상이 반영된 어휘가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능 도전 본문 203쪽

58

정답 풀이 표준 발음법 제10항을 보면 ‘넙지’는 남한에서는 [넙찌]로 발음되고, 문화어 발음법 제8항의 3)을 보면 북한에서는 [넙찌]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⑤ 예를 들어 남한은 어간 ‘넙-’, 북한은 단어 ‘여넙’의 겹받침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59

정답 풀이 ㉠의 ‘(술+나무→)소나무’, ‘(달+달+이→)다달이’를 통해 북한에서도 단어의 합성 과정에서 음운의 탈락이 있으면 탈락한 대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정답 풀이 ‘동무’는 분단 전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의미로 썼었지만, 분단 후 북한에서 ‘동무’를 특유의 정치 이념, 제도와 관련한 어휘로 사용하게 되면서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0~22일 종합 평가 본문 204~207쪽

1 ⑤ 2 ⑤ 3 ③ 4 ⑤ 5 ④ 6 남한의, 한답니다 7 ②
 8 ② 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 합성의 원리에 따라 ‘·, -, |’의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모음을 만들었다. 14 ① 15 ③ 16 ② 17 ③ 18 ⑤ 19 ③
 20 ㉠: ㄹ, ㉡: 두음 법칙

1

정답 풀이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해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은 지시 표현이 아니라 대응 표현이다.

2

정답 풀이 선언 담화는 어떤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여 새로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담화로, 선전 포고, 유언장, 임명장, 판결문

등이 속한다. 환영 인사는 사교 담화에, 설교는 호소 담화에 속한다.

3

정답 풀이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4

정답 풀이 ‘여기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는 상대방에게 이 식당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발화이므로 의문문인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5

정답 풀이 발화자가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친구에게 바쁘냐고 묻는 것은 바쁘지 않으면 짐을 같이 들어 달라는 요청을 담은 발화라고 할 수 있다.

6

정답 풀이 ‘남한의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한답니다.’는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친다.

7

정답 풀이 <보기>에서 이체자 ‘ㅇ, ㄹ, ㅅ’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체자 ‘ㅇ’이 기본자에 가획을 한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풀이 <보기>에서 ‘·’는 발음할 때 소리가 깊다고 하였고 ‘|’는 소리가 얕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풀이 ㉠ ‘·’, ㉡ ‘·’와 ‘ㅇ’, ㉢ ‘·’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 ‘ㅁ’, ㉤ ‘ㅁ’와 같이 서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풀이 가획자가 획을 더한 의도는 소리가 더 세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체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센 글자가 아니므로, 획을 더한 의도가 가획자와 같다고 할 수 없다.

11

정답 풀이 적은 개수의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는 한글의 특성상 검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 유리하다.

12

정답 풀이 <보기>를 통해 한글은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해치는 것,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의성어도 모두 표기할 수 있을 만큼 소리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휴대 전화 자판은 ‘·, -, |’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할 수 있다.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초출자, 재출자 등을 만든 것은 합성의

원리이다.

14

정답 풀이 남한의 '채소'를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차이가 언어로 나타난 예이다.

오답 풀이 ②, ③ 문화어 운동을 통해 외래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예이다.

④, ⑤ 사회 체제 차이가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15

정답 풀이 '女子'가 남한에서는 '여자'로, 북한에서는 '녀자'로 발음되는 것은 남북한 언어에서 형태와 발음이 모두 서로 다른 단어의 예이다.

16

정답 풀이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 모두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을 통해 띄어쓰기를 남한에 비해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정답 풀이 문장 구조는 남북한의 언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이며, 남북한의 언어에서 가장 차이가 심한 것은 어휘이다.

18

정답 풀이 북한에서는 완곡한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많은 편이고 발화를 표면적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간접 발화를 더 선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정답 풀이 '세포'는 남북한에서 형태, 발음이 모두 같으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예이다.

20

정답 풀이 남한의 표준어에서는 어두에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앞의 'ㄹ'이 'ㄴ'으로 변하거나 'ㄷ, ㅌ, ㅊ, ㅌ, ㅍ, ㅍ' 앞에서 'ㄹ'과 'ㄴ'이 없어지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한자의 본음대로 발음, 표기한다.

음운의 변동 1 - 교체

23일

- 1 ○ 2 ○ 3 × 4 ○ 5 × 6 부역 7 솥길 8 구
- 지 9 협조 10 항문 11 침낙 12 국쭈 13 열락처
- 14 실래화 15 쇠부치 16 음절, 음절 17 비음 18 유음
- 19 헛바닥 20 된소리 21 ㉠ 22 ㉡ 23 ㉢ 24 ㉣
- 25 ㉤ 26 줄럼끼 27 해도지 28 할라산 29 암날
- 30 험녁 31 ㉠ 32 ㉣ 33 ㉤ 34 ㉣ 35 ㉢ 36 ㉡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51 ㉤ 52 ㉡ 53 ㉢ 54 ㉠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ㄷ'과 'ㅌ'이 모두 'ㄴ'으로 바뀌었다. ㉣
- 에서는 된소리되기에 따라서 'ㅂ'이 'ㅃ'으로 바뀌었다. 55 ㉤
- 결합하는 두 단어인 '손'과 '발'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 63 ㉢ 64 ㉤ 65 ㉣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09쪽

5

정답 풀이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에는 'ㅅ'이 포함되지 않는다. 'ㅅ' 대신 'ㅇ'이 들어가야 맞는다.

26

정답 풀이 '줄넘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함께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10~213쪽

31

정답 풀이 '무지개[무지개]'를 발음할 때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32

정답 풀이 표기대로 발음할 경우 발음이 어려울 수 있다. 대개의 음운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33

정답 풀이 '맨입[맨닙]'의 표기와 발음을 비교할 때,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음절의 첫소리에 있는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자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ㅇ'이 'ㄴ'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34

정답 풀이 '법학[버팍]'은 자음 축약(저센소리되기)이 일어난 것으로, 음절의 끝소리에서 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로 볼 수 없다.

35

정답 풀이 '읍내[읍내]'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읍'의 끝소리 'ㅂ'도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ㅂ'이 'ㅃ'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면 안 된다.

중학 수능특강

차근차근 익숙해지는 수능형 문항 연습
미리 대비하는 중학생을 위한 수능특강



36

정답 풀이 '왕십리'는 비음화가 일어나 [왕:십니]라고 발음된다.

37

정답 풀이 '툃무침[툃무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깍뚜기[깍뚜기]'는 된소리되기가, '된장국[된:장국]'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38

정답 풀이 '묻는[문는]'은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순리[술:리]'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39

정답 풀이 '설날[설:랄]'은 'ㄴ'이 앞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기 때문에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40

정답 풀이 '실내[실래]'는 순행 동화, 나머지는 모두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진리[질리]'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인접한 두 자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완전 동화에 해당한다.

42

정답 풀이 '국물[궁물]'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종로[중노]'도 'ㄹ'이 앞에 있는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43

정답 풀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것은 순행 동화이다. '중력[중:녁]'은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44

정답 풀이 제시된 음운의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④에서 '살살이[산싸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45

정답 풀이 '늦잠[늘잠]'은 음절의 끝소리 'ㄷ'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ㄷ'이 된소리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46

정답 풀이 '독립[동닙]'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금류[금뉴]'도 비음화가 일어난다.

47

정답 풀이 '볶음[보끔]'은 연음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48

정답 풀이 <보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눈빛[눈뵈]'은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49

정답 풀이 '개울녘[개울럭]'은 유음화에 의해 'ㄴ'이 'ㄹ'로 바뀌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이 'ㄱ'으로 바뀐다.

50

정답 풀이 '뿔느라[뿔느라]'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듣는[든는]'도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51

정답 풀이 ㉠과 ㉡ 모두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52

정답 풀이 '담그-+-아 → 담가'는 어간의 'ㄱ'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화라고 볼 수 없다.

53

정답 풀이 '팔이다[파치다]'와 '여닫이문[여다지문]'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54

정답 풀이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ㄷ'과 'ㅌ'이 모두 'ㄷ'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된소리되기에 따라서 안울림 예사소리인 'ㄷ'에 이어지는 안울림 예사소리 'ㅂ'이 '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

정답 풀이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발'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능 도전

본문 214~215쪽

56

정답 풀이 '끝에[끄테]'는 바뀌는 음운이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57

정답 풀이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표'이 'ㅂ'으로 바뀌고, 다시 비음화에 의해 'ㅂ'이 'ㅃ'으로 바뀐다.

58

정답 풀이 ㉠은 역행 동화, ㉡은 순행 동화이다. '작년[장년]'은 음운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칼날[칼랄]'은 음운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의 예에 해당한다.

59

정답 풀이 '팔죽[판죽]'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꽃말[꼇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60

정답 풀이 ㉠과 ㉡ 모두 한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61

정답 풀이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말을 찾아볼 수 없다.

62

정답 풀이 '주-+-어 → 쥐'에서는 단모음 'ㅈ'가 반모음 'w'로 바뀐 후 뒤에 오는 'ㄷ'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 '꺨'가 되었다.

63

정답 풀이 ㉣을 통해 받침 'ㄷ'이 'ㅎ'과 결합할 때 'ㅌ'이 된 후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일어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64

정답 풀이 '땀받이[땀바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65

정답 풀이 '견디-+-어서'에서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ㅟ'로 교체되어 뒤에 오는 'ㅣ'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ㅟㅣ'가 된다. 이에 따라 [견더서]가 되는 것이다.

24일 음운의 변동 2 - 축약, 탈락, 첨가

1 ○ 2 × 3 ○ 4 ○ 5 ○ 6 구과 7 노치
 8 노는 9 잠가 10 서라 11 여덜 12 갑 13 구피다
 14 풀립 15 시공뉴 16 축약 17 자음군 18 탈락
 19 파생어 20 거센소리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그 예사소리(자음)와
 결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 50 ㉹ 51 ㉺ 52 ㉻
 53 ㉼ 54 ㉽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으며, 두 개의 음운이 줄어들었다. 55 ㉾ ㉿와 ㊀에는 공통적으로 'ㄴ' 첨가가 일어났다.
 56 ㊁ 57 ㊂ 58 ㊃ 59 ㊄ 60 ㊅ 61 ㊆ 62 ㊇
 63 ㊈ 64 ㊉ 65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18~221쪽

31

정답 풀이 '좋아[조:아]'는 'ㅎ'이 모음 'ㅣ' 앞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32

정답 풀이 '따님', '소나무', '겨우내', '바느질'은 모두 'ㄹ' 탈락이 일어났지만, '소나기'에는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33

정답 풀이 '치솟-+-아→치솟아[치소사]'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34

정답 풀이 ㉠은 '불-'과 '-니'가 결합한 것이고, ㉡은 '울-'과 '짓-', '-고'가 결합한 것이다. 둘 모두 'ㄹ'이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정답 풀이 '끓기'는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 'ㅋ'이 되어 [끈키]로 발음된다.

36

정답 풀이 '올해[올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작년[장년]'은 비음화, '은행잎[은행님]'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샛노랑계[샌노라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자음 축약, '물들었다[물드러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37

정답 풀이 <보기>에서 설명한 자음 축약과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나는 것은 '달히다[다티다 → 다치다]'이다.

38

정답 풀이 '싫다[실타]'는 축약에 해당한다.

39

정답 풀이 '탓하다[탄하다 → 타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40

정답 풀이 '국화[구과]'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러한 거센소리되기는 '행복하게[행보카게]'에서도 일어난다.

41

정답 풀이 '풀잎[풀립]'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가 일어났다. '읽는[잉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났다. 음운의 변동이 ㉠은 세 번, ㉡은 두 번 일어났다.

42

정답 풀이 '부엌에[부어케]'는 연음이 일어날 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43

정답 풀이 '한여름[한너름]'은 'ㄴ' 첨가, '쌍다[싸타]'는 자음 축약, '낱아[나아]'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44

정답 풀이 <보기>의 ㉠은 첨가, ㉡은 탈락,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없을[업:쓸]'은 된소리되기(교체)에 해당한다.

45

정답 풀이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 필]로 발음된다.

46

정답 풀이 '옹거니[올커니]', '터놓고[티노코]', '독하다[도카다]', '똑똑히[똑포키]'는 축약이 일어나지만, '수놓은[수:노은]'은 탈락이 일어난다.

47

정답 풀이 '논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 [논닐]로 발음된다.

48

정답 풀이 ㉠~㉢에 모두 두 자음이 한 자음으로 합쳐지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났다.

49

정답 풀이 '농고[노코]', '당다[다:타]', '쌍지[싸치]'를 통해 'ㅎ'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합쳐져서 거센소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

정답 풀이 '닭다[달타]'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51

정답 풀이 'ㅂ'과 'ㅎ'이 합쳐져 'ㅃ'이 되었으며(축약), 'ㄴ'이 첨가되었다.

52

정답 풀이 '급히[그피]', '답답하면[답따파면]', '젓히고[저치고]'에 축약이 일어난다.

53

정답 풀이 '물약[물낙 → 물략]'은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으며, 유음화가 일어나 'ㄴ'이 'ㄹ'로 교체되었다.

54

정답 풀이 자음군 단순화와 자음 축약이 모두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55

정답 풀이 '눈요기[눈뇨기]'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백분율[백뽀닐]'은 된소리되기와 'ㄴ' 첨가가 일어난다.

수능 도전

본문 222~223쪽

56

정답 풀이 '굳히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ㅌ'이 'ㅊ'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치다]로 발음된다.

57

정답 풀이 '고프-+-아서 → 고파서'의 경우 'ㄷ' 탈락이 일어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58

정답 풀이 ㉠은 자음군 단순화와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났다. ㉡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일어났다. ㉢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에 공통적으로 첨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9

정답 풀이 ㉠의 '꽃잎[꼇닙]'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늘었다. ㉡의 '막지[막찌]'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의 '막힘없다[막기뻬따]'는 축약과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60

정답 풀이 '서른'과 '여덟'이 결합하면서 'ㄴ'이 첨가되었고, 자음군 단순화(탈락)에 따라 '여덟'이 [여틸]로 발음된다.

61

정답 풀이 '팥빵[판빵]'은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나고, '맷던[만:턴]'은 'ㅎ'과 뒤의 'ㄷ'이 'ㅌ'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애트한[에트탄]'은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나고, 앞의 'ㄷ'과 뒤의 'ㅎ'이 'ㅌ'으로 합쳐지

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62

정답 풀이 '농고[노코]'는 축약이, '나는(날-+-는)'은 탈락이 일어났다. 축약과 탈락은 공통적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63

정답 풀이 '술+있[술입 → 술닙 → 술립]'에서는 'ㅍ → ㅂ(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ㄴ → ㄹ(유음화)'의 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64

정답 풀이 '종고[조:코]'는 'ㅎ'이 인접한 'ㄱ'과 합쳐져 'ㅋ'으로 축약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닿아[다아]'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65

정답 풀이 '크-+-어서 → 커서'의 경우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

23~24일

종합 평가

본문 224~227쪽

1 ⑤	2 ①	3 ④	4 ④	5 ①	6 ④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④	14 ④	15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⑤			

1

정답 풀이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발음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2

정답 풀이 '먹는[멍는]'은 교체, '싫어[시러]'는 탈락, '숨이불[숨:니불]'은 첨가, '착하다[차카다]'는 축약이 일어난다.

3

정답 풀이 '급하게'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 [그파게]로 발음된다.

4

정답 풀이 '굳이[구지]'와 '같이[가치]'는 받침 'ㄷ'과 'ㅌ'이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인 'ㄷ'과 'ㅌ'으로 각각 바뀌었다.

5

정답 풀이 '낱는[난:는]'과 '읽어[일거]'는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같지만, '종아[조:아]'와 '싫어[시러]'는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6

정답 풀이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해돋이[해도지]'이다.

7

정답 풀이 '밤물[밤물]'은 'ㅂ'이 뒤에 있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뀐다. 음운 변동의 결과 두 자음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완전 동화에 해당한다.

8

정답 풀이 '서울역'은 'ㄴ' 첨가에 의해 [서울넉]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9

정답 풀이 '옥망'은 비음화가 일어나 [용망]으로 발음되며, 'ㄱ'이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10

정답 풀이 <보기>의 ㉞는 축약, ㉟는 탈락에 해당한다. ㉠에서 '윽기[읍끼]'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며, '시작했다[시:자퀸때]'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난다.

11

정답 풀이 <보기>는 어간의 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뀐 후, 어미의 모음 'ㅣ'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ㅟ'가 된 것을 보여 준다. ㉡에는 <보기>와 같은 반모음화가 일어난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12

정답 풀이 '신선로'는 유음화가 일어나 [신설로]로 발음된다. '설날'도 유음화가 일어나 [설:랄]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법학[법팍]'은 자음 축약, ㉣ '종로[종노]'는 비음화, ㉤ '살불이[살부치]'는 구개음화, ㉥ '따님'은 'ㄹ' 탈락이 일어난다.

13

정답 풀이 '똑똑히'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똑또키]로 발음된다.

14

정답 풀이 '날날이[난:나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모든 음운 변동이 교체에 해당한다.

15

정답 풀이 '낮익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난넉따]로 발음되며, 음운의 변동 이후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난다.

16

정답 풀이 '머리말에'는 [머리마테]로 발음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받침에 쓰인 'ㅌ'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ㅣ' 모음 계열 앞에서 일어난다.

17

정답 풀이 '설익다[설릭따]'는 'ㄴ' 첨가와 유음화, 된소리되기 등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 때문이다.

18

정답 풀이 '말꼬'는 '제11항-다만'의 적용을 받아 [말꼬]로 발음해야 한다.

19

정답 풀이 ㉦는 'ㄴ' 첨가, ㉧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잡는'을 발음하면 ㉨만 일어나 [잡는]이 된다.

20

정답 풀이 '밭이[바치]'는 'ㅌ'이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낮이'는 받침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발음된 것으로 구개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5일

문장의 호응 1 - 높임, 시간 표현

- 1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는 11 -던 12 -(으)ㄹ 13 ㉢ 14 ㉣
- 15 ㉢ 16 객체 높임 17 상대 높임 18 주체 높임
- 19 객체 높임 20 상대 높임 21 미래 22 과거 23 현재
- 24 간접 25 선어말 26 조사 27 객체 28 보조사
- 29 동사 30 태도 31 ㉡ 32 ㉡ 33 ㉤ 34 ㉣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 56 ㉤ 삼촌, 할머니 모시고 공원에 좀 다녀오세요. 57 ㉤ ㉠:
- 주체 높임이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되었다.
- ㉡: 객체 높임이 조사 '께'와 특수 어휘인 '여쭙보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 58 ㉡ 59 ㉠ 60 ㉠ 61 ㉤ 62 ㉠
- 63 ㉠ 64 ㉣ 65 ㉠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30~233쪽

31

정답 풀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32

정답 풀이 '맑다'는 형용사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없이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33

정답 풀이 '여쭙어보다'는 '물어보다'의 높임말로,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이다.

34

정답 풀이 ㉢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은 특수 어휘 '여쭙보다'의 사용을 통해 객체를 높이고 있다.

35

정답 풀이 '동한이가 학교에 가는 중이다.'는 '-는 중이다'를 통해 진행상을 표시한다.

36

정답 풀이 ㉠의 '-어 간다'는 현재 시제와 진행상을, ㉡의 '-어 버렸다'는 과거 시제와 완료상을, ㉢의 '-고 있다'는 현재 시제와 진행상을 표시한다.

37

정답 풀이 객체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므로, ㉤이 해당한다.



38

정답 풀이 미래 시제도 '나는 내일도 학교에 갈 것이다.'의 '내일' 등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39

정답 풀이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만 사용한다. 이 문장은 '곧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40

정답 풀이 '먹은'의 '-은'은 동사 어간에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아까 네가 먹은 음료'에서 '먹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

정답 풀이 ㉠은 특수 어휘 '진지'의 사용을 통해, ㉡은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다.

42

정답 풀이 '걸어가야겠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43

정답 풀이 ㉠보다는 '부모'에 '-님'을 붙여 표현하고 있는 ㉡이, ㉢보다는 '드렸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이 높임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4

정답 풀이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므로 미래 시제이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의 '떠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45

정답 풀이 '좋아해'는 해체가 사용된 문장이다. '자리에 앉아.'는 해체의 문장이므로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제시된 문장과 같다.

46

정답 풀이 '선생님께서', '오시느라', '늦으실'을 통해 주체 높임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고'를 통해 객체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애들아'와 '같이'를 통해 상대(청자)를 높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7

정답 풀이 '드렸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48

정답 풀이 '너희가 앞으로 아버지께 혼날 일'에 대해 화자가 확신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9

정답 풀이 대화 상대방인 '유정'이 말한 내용은 작년 소풍 전날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발화시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50

정답 풀이 ㉠은 '-어 가다'를 통해, ㉡은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51

정답 풀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있었어'에서 과거 시제를, '어제'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52

정답 풀이 ㉠에서 높임을 받는 인물은 청자인 '엄마'이고, ㉡은 주체인 '할머니', ㉢은 객체인 '수학 선생님'이다.

53

정답 풀이 '싶겠다'는 보조 용언 '싶다'에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한 것이지만 어떠한 동작이 진행될 예정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추측한 것이다. 여기서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라 추측을 나타낸다.

54

정답 풀이 '진지'와 '드시다'는 모두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55

정답 풀이 '현주가', '갓어요'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시고'를 통해 객체 높임을, '갓어요'를 통해 상대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56

정답 풀이 '수호'를 '삼촌'으로 바꾸면서 상대 높임을 실현해야 하며,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해야 한다. 또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요체'를 써야 한다.

57

정답 풀이 ㉠의 '할아버지께서는'에서 '께서'를, '보신다'에서 '-시-'를 찾을 수 있다. ㉡의 '선생님께'에서 '께'를, '여쭙보았다'에서 특수 어휘 '여쭙보다'를 찾을 수 있다.

수능 도전

본문 234~235쪽

58

정답 풀이 ㉠은 동사의 어간 '내리'에 관형사형 어미 '-리'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내릴 것'과 부사어 '내일'을 통해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59

정답 풀이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60

정답 풀이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때는 주격 조사 '가'를 '께서'로 고쳐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정답 풀이 '어머니께 혼나는 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그것을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62

정답 풀이 ㉠의 예문에 쓰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이는 ㉠의 앞 문장에서 ‘-았-’과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 ㉠의 뒤 문장에서 ‘지금’이라는 부사와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63

정답 풀이 ‘저희’는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로, ‘드리다’는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말씀’은 겸양의 표현과 높임의 표현으로 모두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낮춤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사용되었다.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64

정답 풀이 ㄹ의 ‘적었었다’는 ‘적다’에 선어말 어미 ‘-었었-’이 결합된 말로,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65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문장들에서 ㄱ은 부사격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ㄴ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계시다’를 활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ㄷ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가시다’를 활용해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서술어 ‘모시다’를 활용해서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객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ㄱ, 주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ㄴ, 객체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ㄷ임을 알 수 있다.

26일 **문장의 호응 2 - 피동·사동, 부정 표현**

1 × 2 ○ 3 × 4 ○ 5 ○ 6 ○ 7 사동 8 피동
 9 사동 10 사동 11 피동 12 사동 13 사동 14 피동
 15 피동 16 사동 17 사동 18 피동 19 ④ 20 ④
 21 능동 22 주동 23 못 24 부사 25 보조 26 청유문
 27 피동사 28 이중 피동 29 주체 30 직접 사동
 31 ⑤ 32 ① 33 ⑤ 34 ⑤ 35 식탁 위에 책을 올려놓지 마. 36 ③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⑤ 44 ① 45 ③ 46 ② 47 ③ 48 ①
 49 ⑤ 50 ② 51 ③ 52 ① 53 ④ 54 ㉠ ㉡: 요즘 간판 이름으로 외래어가 많이 쓰인다. ㉢: 그는 사람들에게 불운한 천재라고 불린다. 55 ㉠ 직접 사동, ㉡ 간접 사동 56 ㉠ ㉡ 보입니다. ㉢ 풀렸어. 57 ③ 58 ④ 59 ① 60 ⑤
 61 ⑤ 62 ③ 63 ② 64 ③ 65 ④

31

정답 풀이 사동문을 만들 때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32

정답 풀이 ‘익히다’는 피동사가 아니라 ‘익다’의 사동사이다.

33

정답 풀이 ‘늦었다’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34

정답 풀이 ㉠과 ㉡ 모두 옷을 입는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이다.

35

정답 풀이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말다’를 쓰며, ‘해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로 쓴다.

36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은 짧은 부정문(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안 왔어.)으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없다.

37

정답 풀이 ‘그’가 주어이고 자신이 직접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동을 나타내는 ‘주입시키’는 ‘주입하는’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38

정답 풀이 ‘만나다’는 피동사 형태를 갖지 않는다.
오답 풀이 ㉤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라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39

정답 풀이 ‘보지 않았어?’는 A와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 ‘누나’, ‘책’, ‘샀다’ 중 어떤 것을 부정하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40

정답 풀이 ‘뒹인’은 ‘뒹다’의 피동사 ‘뒹이다’의 관형사형이다.

41

정답 풀이 ‘보였다(=보이었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42

정답 풀이 ‘벗겼다’는 엄마가 곤히 잡든 아이의 안경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벗긴다는 점에서 직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43

정답 풀이 ㉠의 ‘달린’은 ‘물건이 일정한 곳에 걸리거나 매여 있게 되다.’의 뜻이므로 달다 ㉡의 피동사가 쓰인 것이다.

44

정답 풀이 ‘갈겨져’는 ‘갈기+어지+어’의 구조로 어간에 ‘-어지-’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정답 풀이 ‘-되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에 붙어, 그것이 자동사가 되게 한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되다’가 붙을 수 없다.

46

정답 풀이 ㉠은 ‘못’ 부정문이므로 긴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나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했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47

정답 풀이 ㉠의 ‘읽힌’에서 접미사 ‘-히-’가, ㉡의 ‘들려’에는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 ㉡은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48

정답 풀이 ‘간드러지다’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49

정답 풀이 ㉠의 ‘뜯기다’는 ‘질긴 음식을 입에 물고 떼어서 먹게 하다.’의 뜻이고, ㉡의 ‘뜯기다’는 ‘초식 동물에게 땅에 난 풀 따위를 떼어서 먹게 하다.’의 뜻으로 둘 다 ‘뜯다’의 사동사에 해당한다.

50

정답 풀이 ‘안 난다’는 ‘생각이 나다’라는 상태를 부정하는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이를 긴 부정문 형태인 ‘나지 않는다’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동일하다.

51

정답 풀이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꿀 때 주동 표현이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생이 온다.’와 같은 예문은 목적어가 없으나 ‘언니가 동생을 올린다.’처럼 다른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 사동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

52

정답 풀이 ‘어느새 (누군가가) 안개를 말끔히 걷었다.’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면, 제시된 문장에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3

정답 풀이 ‘잡혔다’는 ‘잡다’의 피동사가 쓰인 것이다.

54

정답 풀이 ㉠: 능동문의 목적어인 ‘외래어틀’이 피동문의 주어 ‘외래어가’가 되고, 능동문의 서술어에 쓰인 ‘쓰다’가 피동사 ‘쓰이다’가 된다. ㉡: 능동문의 목적어인 ‘그를’이 피동문의 주어 ‘그는’이 되고, 능동문의 서술어에 쓰인 ‘부르다’가 피동사 ‘불리다’가 된다.

55

정답 풀이 직접 사동으로 보면 딸이 색동옷을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간접 사동으로 보면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고 어머니는 시키기만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56

정답 풀이 (1) 화제의 성격상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어를 설정하기 어렵고,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화제의 중심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화제의 중심이 날씨이고, 화제의 성격상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어를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능 도전 본문 242~243쪽

57

정답 풀이 ‘안겼다’는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58

정답 풀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에는 ‘-지 아니하다’라는 긴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는 의지나 능력이 아닌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59

정답 풀이 ‘빼앗기다’는 ‘가진 것을 억지로 남에게 잃게 되다.’의 의미로 ‘빼앗다’의 피동사이다.

60

정답 풀이 ㉠의 ‘쓰리다’는 ‘쓰다’ ㉠의 피동사이고, ㉡의 ‘쓰리다’는 ‘쓰다’ ㉠의 사동사이다. ㉢의 ‘쓰리다’는 ‘쓰게 하다’와 의미가 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1

정답 풀이 단형 사동, 즉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장형 사동, 즉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은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단형 사동이고 ㉡은 ‘-게 하다’에 의한 장형 사동이므로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다.

62

정답 풀이 ㄴ에서 ‘못’은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63

정답 풀이 ‘만지다’의 경우는 피동 접미사 ‘-이- / -히- / -리- / -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 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동생의 이름이 민수에 의해 불렸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4

정답 풀이 ㉢은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라기보다

는,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된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65

정답 풀이 사동은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④의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스스로 입게 하셨다.'는 '할머니께서 손자로 하여금 스스로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는 의미로만 쓰인다.

오답 풀이 ② '재우다'는 어간 '자-'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 두 개가 붙은 경우이다.

⑤ '먹이다'는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사동을 나타내지 않고 '사육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25~26일 종합 평가 본문 244~247쪽

1 ④ 2 ① 3 ③ 4 ⑤ 5 ② 6 ④ 7 ④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 ㉠: 나는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 자꾸 밀렸다. ㉡: 아이가 고운 한복을 입었다. 17 ④ 18 ⑤ 19 ④ 20 ㉡ ㉠: 나는 물도 삼키지 못했다. ㉢: 나는 이번 주 주번이 아니다.

1
정답 풀이 '드신다'는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2
정답 풀이 ㉠은 '깨'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은 '계서'와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은 '계서'와 '가시다'를 통해 주체인 '삼촌'을, '모시다'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3
정답 풀이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아빠'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주원'이다.

4
정답 풀이 '말씀'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5
정답 풀이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계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보조사 '요'는 청자인 '선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6
정답 풀이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 않고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7
정답 풀이 ㉡은 시간 부사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의 서술어 '재미있다'는 형용사이므로 선어말 어미의 결합 없이 시제를 표현한다.

8
정답 풀이 '-어 버리다'를 통해 발화시를 기준으로 빵을 먹은 동작이 완료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9
정답 풀이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10
정답 풀이 '-겠-'이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 경우이다.

11
정답 풀이 '엄마가 나에게 찌개 맛을 보게 하셨다.'의 의미이므로, 피동문이 아니라 사동문에 해당한다.

12
정답 풀이 '가려진'은 '가리-+-어지-+-ㄴ'으로, '-어지다'만 결합한 피동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정답 풀이 ㉠은 '열이 얼음을 녹였다.'와 같이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고,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C]에 해당한다. ㉡은 '?가 나에게 더위를 먹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A]에 해당한다. ㉢은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모으게 했다.'와 같이 통사적 사동문으로만 만들 수 있으므로 [B]에 해당한다. '모으다'는 사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14
정답 풀이 ㉠의 주동문의 주어 '미래가'는 사동문에서 '미래'라는 목적으로 바뀌었지만, ㉡의 주동문의 주어 '아이'는 사동문에서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풀이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들리었다(들-+-리-+-었-+-다)'와 같이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능동문이다. '칭찬이 선생님에 의해 나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16
정답 풀이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능동문의 목적어('나')는 피동문의 주어, 능동문의 주어('버스 안의 사람들')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서술어 '밀었다'는 피동사 형태인 '밀렸다'로 바뀐다. ㉡: 사동문이 주동문으로 바뀌면서 사동문의 부사어('아이')는 주동문의 주어, 사동문의 서술어 '입혔다'는 주동사 형태인 '입었다'로 바뀐다.

17
정답 풀이 '못'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8
정답 풀이 '-지 아니하다'라는 긴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고, 산이 가파르지 않다는 사실을 단순히 나타내고 있다.

19
정답 풀이 '안'을 사용한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20

정답 풀이 ㉠ 능력 부정이고 긴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므로 ‘-지 못하다’를 사용한다. ㉡ ‘이다’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를 활용한다.

27일 형태소, 어근과 접사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어근 11 접미사 12 접두사 13 형용사
 14 명사 15 어간 16 ㉤ 17 ㉣ 18 의존 19 실질
 20 어미 21 접사 22 품사 23 12개 24 그, 시골, 기와, 집
 25 는, 예, -ㄴ, 을, -었-, -다 26 크-, 지- 27 일
 치하고 28 일치하지 않아 29 명사 30 동사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④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나, 는, 솔, 앞, 을, 씹-, -어, 보-, -았-, -다
 41 ③ 42 ④ 43 ④ 44 ④ 45 ② 46 ⑤ 47 ⑤
 48 ④ 49 ③ 50 ① 51 ⑤ 52 ③ 53 ③ 54 는,
 를, -러, 까지, -았-, -어 55 하늘, 구름, 끼-, 소나기, 쏟-,
 지- 56 어근: 사랑, 접사: -하다 / 어간: 사랑하-, 어미: -다
 57 ② 58 ③ 59 ③ 60 ④ 61 ② 62 ② 63 ①
 64 ⑤ 65 ④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49쪽

23~26

정답 풀이 ‘그는 시골에 큰 기와집을 지었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그, 는, 시골, 에, 크-, -ㄴ, 기와, 집, 을, 지-, -었-, -다’가 된다.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50~253쪽

31

정답 풀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32

정답 풀이 용언 어간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33

정답 풀이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34

정답 풀이 ㉠의 자립 형태소는 ‘가을’, ‘하늘’의 2개이고 실질 형태소는 ‘가을’, ‘하늘’, ‘높-’의 3개이다.

35

정답 풀이 ‘집’, ‘떡’은 자립 형태소이므로 ㉠에 속한다. ‘에서, 빛-, -은’ 중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빛-’이므로 ㉡에 속하고 ‘에서, -은’은 ㉢에 속한다.

36

정답 풀이 명사 ‘꽃’과 부사 ‘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 ‘꽃’, ‘참’, 그리고 형용사 어간인 ‘예쁘-’는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37

정답 풀이 ‘짱그렸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짱그리-’, ‘-었-’, ‘-다’인 것은 맞지만, ‘짱그렸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단어를 ‘짱그리-’와 ‘-었다’로 나눈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정답 풀이 ‘치닫는’은 ‘치-+닫-+-는’으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접사+어근+어미’의 결합이다. ‘잡히면’은 ‘잡-+-히-+-면’으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은 접사, ○은 어근, □은 어미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휘날리며’는 ‘휘-+날-+-리-+-며’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고, ‘접사+어근+접사+어미’의 결합이므로 이를 주어진 기호로 나타내면 ‘◇+○+◇+□’가 된다.

39

정답 풀이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 자립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다.

40

정답 풀이 ‘솔잎’은 ‘솔’과 ‘잎’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나누어야 하며, ‘뺨어’라는 말은 용언의 어간 ‘뺨-’에 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이며, ‘보았다’는 ‘보다’의 어간 ‘보-’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 어말 어미 ‘-다’로 구분된다. 이는 각각 실질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태소로 분석된다.

41

정답 풀이 실질적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면서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인 ‘마당, 봄, 꽃, 가득’은 ㉠에 속한다.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면서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인 ‘피-’는 ㉡에 속한다. 형식적인 의미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인 ‘예, 는, 이, -었-, -다’는 ㉢에 속한다.

42

정답 풀이 ‘-들’은 복수를 표시하는 접미사이며, 의존 형태소인 것은 맞지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43

정답 풀이 ‘솔+나무→소나무’, ‘불+나방→부나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44

정답 풀이 ㉠ 접미사는 ‘기쁘-+-ㅁ’의 ‘-ㅁ’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어미는 ‘기쁘-+-네’의 ‘-네’처럼 어간에 붙어 활용형을 만들 뿐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 접미사와 결합한 말은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전에 오르지만 어미와 결합한 말은 단순 활용형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사전에는 용언의 기본형만이 등재된다.

45

정답 풀이 접미사는 주로 어근과 결합하는데, 어근에는 의존 형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 형태소가 대부분이다.

46

정답 풀이 '개살구'의 '개-'는 접두사로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등의 의미이므로 '오줌싸개'의 '-개'와 다른 뜻이다.

47

정답 풀이 '새롭다'에서 접미사 '-롭다'는 관형사 어근 '새'에 결합하여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었다.

48

정답 풀이 '헛소리'는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이고, '책가방'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49

정답 풀이 '설익다'의 어근은 '익-'이고, 어간은 '설익-'이다. 참고로, '설-'은 접두사이다.

50

정답 풀이 '거짓되다'의 '-되다'는 일부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발견되다, 사용되다, 처리되다, 형성되다'의 '-되다'는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든다.

51

정답 풀이 ㉓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에 해당한다. '자-+-ㅁ'이 명사가 된 것이므로 여기서 '-ㅁ'은 어근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기능을 한 것이다. ㉔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따라서 '잡'은 '자다'가 활용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ㅁ'은 '자-'라는 어간에 붙은 어미에 해당한다.

52

정답 풀이 '시아버지'의 '시-'는 '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53

정답 풀이 ㉑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형용사 앞에는 '시-' 또는 '짓-'이 붙는다. ㉒ 'ㄱ, ㅍ, ㅃ'과 같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시-'가 붙는다. ㉓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 앞에는 '셋-/깃-'이 붙으나, 'ㅎ' 앞에서는 '새-/시-'가 붙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4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우리, 는, 너, 를, 보-, -러, 여기, 까지, 오-, -았-, -어'가 된다. 이 중에서 실질 형태소는 '우리, 너, 보-, 여기, 오-'이고, 형식 형태소는 '는, 를, -러, 까지, -았-, -어'이다.

55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하늘, 예, 먹-, 구름, 이, 끼-, -면서, 소나기, 가, 쏟-, -아, 지-, -었-, -다'가 된다. 이 중에서 실질 형태소는 '하늘, 구름, 끼-, 소나기, 쏟-, 지-'이고, 형식 형태소는 '예, 먹-, 이, -면서, 가, -아, -었-, -다'이다.

56

정답 풀이 '사랑하다'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인 '사랑'이 어근이고, '-하다'는 명사 어근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접사이다. 그러나 동사 '사랑하다'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이므로 어간은 '사랑하-'이고 어미는 '-다'이다.

수능 도전 본문 254~255쪽

57

정답 풀이 명사 '형'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을'은 조사로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는 '아니요'라는 답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잡-'은 용언의 어간인데,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달아나지 못하게 하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58

정답 풀이 밑줄 친 '은/는', '들-/들-', '-았-/-었-'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각각 받침의 유무 및 결합하는 어간과 어미의 차이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이형태의 관계가 있는 형태소들이다.

59

정답 풀이 '달리기'는 어근 '달리-'와 접사 '-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60

정답 풀이 '살리다', '입히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61

정답 풀이 '한여름'의 '한-'은 '한창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2

정답 풀이 '높다'는 '높고', '높지'와 같이 활용하는데,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높-'이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또한 어근을 분석할 때에는 어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높다'는 어간과 어근 모두 '높-'으로 동일하다.

63

정답 풀이 [자료]에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자라다'이다. '자라다'의 어간과 어근 모두 '자라-'로 동일하다.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먹히다', '치솟다', '휘감다'이다. '먹히다'의 어간은 '먹히-'이고, 어근은 '먹-'이다. '먹히-'는 어근 '먹-'에 접사 '-히-'가 결합된 단어이다.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이고 어근은 '솟-'이다. '치솟-'은 어근 '솟-'에 접사 '치-'가 결합된 단어이다. '휘감다'의 어간은 '휘감-'이고 어근은 '감-'이다. '휘감-'은 어근 '감-'에 접사 '휘-'가 결합된 단어이다. c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검붉다'이다. '검붉다'는 어간은 '검붉-'이고 어근은 '검-', '붉-'이다. '검붉-'



은 어근 ‘검-’과 어근 ‘붉-’이 결합된 단어이다.

64

정답 풀이 ‘날-’은 실질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에 일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그 뜻을 제한하는 접사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날고기’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에 해당한다.

65

정답 풀이 ‘꿈틀거리다’, ‘평화롭다’, ‘자유롭다’ 등을 보면, 접미사도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붙을 수 있다.

28일 합성어와 파생어

1 × 2 ○ 3 ○ 4 ○ 5 × 6 × 7 ○ 8 ×
 9 융합 10 통사적 11 관형사형 12 통사적 13 부사
 14 비통사적 15 명사 16 명사 17 부사 18 명사
 19 부사 20 부사 21 형용사 22 명사 23 형용사
 24 동사 25 동사 26 형용사 27 형용사 28 동사
 29 형용사 30 형용사 31 ③ 32 ③ 33 ④ 34 ②
 35 ④ 36 ③ 37 ③ 38 ① 39 ⑤ 40 ③ 41 ①
 42 ② 43 ③ 44 ② 45 ④ 46 ① 47 ④ 48 ②
 49 ⑤ 50 ① 51 ③ 52 ④ 53 ㉠ ㉡: 동사의 어간인 어근에 접미사 ‘-이’를 붙여 명사를 파생함. ㉢: 형용사의 어간인 어근에 접미사 ‘-이’를 붙여 동사를 파생함. ㉣: 부사인 어근에 접미사 ‘-질’을 붙여 명사를 파생함. ㉤: 명사인 어근에 접미사 ‘-롭다’를 붙여 형용사를 파생함. 54 ㉠ ㉡: 통사적 합성어, 어근이자 용언의 어간 ‘젊-’이 ‘이’를 수식할 때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한 다음 연결되었는데,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은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한다. ㉢: 높푸르다: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이자 용언의 어간 ‘높-’이 어미를 취하지 않고 뒤에 오는 ‘푸르-’와 바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55 ② 56 ② 57 ② 58 ② 59 ① 60 ⑤ 61 ②
 62 ① 63 ④ 64 ⑤ 65 ④

문제로 정복하기 본문 258~261쪽

31

정답 풀이 조사와 어미는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때 고려하지 않으며 어근은 그 단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체언의 구조를 파악할 때 조사를 어근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정답 풀이 ‘말(어근)+-하다(접미사)’의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33

정답 풀이 ‘손발’이 ‘손과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일 때는 융합 합성어로 볼 수 없다.

34

정답 풀이 ‘덧-(접사)+신(어근)’은 본래 단어의 품사도 명사였고 파생어의 품사도 명사이다.

35

정답 풀이 ‘웃음꽃’의 ‘웃음’에 접사 ‘-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접사가 포함되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 단어의 품사가 파생어인 것은 아니다. ‘웃음꽃’은 둘로 쪼개었을 때 나오는 성분인 ‘웃음’과 ‘꽃’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6

정답 풀이 ‘헛고생’은 접두사 ‘헛-’과 어근 ‘고생’으로 구성된 파생어이고, 덮밥은 어근 ‘덮-’과 어근 ‘밥’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덮밥’의 구성과는 달리, ‘헛고생’의 경우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임을 알 수 있다.

37

정답 풀이 ‘반짝거리다’는 어근 ‘반짝’에 접미사 ‘-거리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온’이라는 관형사와 ‘중일’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단어이다.

⑤ ‘손을 대다’에서 조사 ‘을’이 생략된 단어이다.

38

정답 풀이 ‘녹는점’은 ‘녹는’과 ‘점’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녹는’은 용언 ‘녹다’의 활용형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39

정답 풀이 ‘믿음’은 접미사 ‘-음’이 동사 어근 ‘믿-’에 붙은 말이고, ‘달리기’도 역시 접미사 ‘-기’가 동사 어근 ‘달리-’에 붙은 말이다.

40

정답 풀이 ‘스며들다’는 ‘스미다’의 어간인 ‘스미-’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들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41

정답 풀이 ‘꺾쇠’는 ‘용언의 어간(꺾-)+체언(쇠)’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높푸르다’는 ‘용언의 어간(높-)+용언(푸르다)’의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산들바람’은 ‘부사(산들)+체언(바람)’의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42

정답 풀이 ‘뜨개질’을 둘로 쪼개면 ‘뜨개’와 ‘-질’로 나뉘는데, ‘-질’은 접사이므로 ‘뜨개질’은 파생어이다.

43

정답 풀이 ‘쌀밥’은 ‘쌀’이 의미 관계상 ‘밥’이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44

정답 풀이 ‘잠꾸러기’는 동사 어간 ‘자-’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꾸’이 더해져 ‘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것이 심하

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꾸러기'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45

정답 풀이 '산나물'은 '산에서 나는 나물'이라는 뜻으로, '보리밥, 벽돌집, 비단옷, 밀짚모자'처럼 '재료+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46

정답 풀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는 '-쟁이'이므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고집쟁이'가 적절하다.

47

정답 풀이 '말다, 부딪다'는 원래 단어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접사가 붙어 단어의 품사를 동사로 바꾼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8

정답 풀이 '막히다'의 '막-'은 어근이고, '막말'의 '막-'은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49

정답 풀이 '꽃사과'는 '처음 나온,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꽃-'이 '사과' 앞에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50

정답 풀이 '검보'는 '검'이라는 명사 어근에 접사 '-보'가 결합된 것이고, '울보'는 '울-'이라는 동사 어근에 접사 '-보'가 결합된 것이며, '똥똥보'는 부사 어근에 접사 '-보'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접사와 결합된 어근이 특정 품사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1

정답 풀이 '출렁거리다'는 접미사 '-거리다'가 부사 어근 '출렁'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 것이다.

52

정답 풀이 ㉠ 군-(접두사)+침(어근), ㉡ 되-(접두사)+감다(어근), ㉢ 엇-(접두사)+보다(어근)

53

정답 풀이 ㉠: '놀'은 동사 '놀다'의 어간인 어근 '놀-'에 접미사 '-이'를 붙여 명사를 파생한 것이다. ㉡: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인 어근 '높-'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동사를 파생한 것이다. ㉢: '딸꾹질'은 부사인 어근 '딸꾹'에 접미사 '-질'을 붙여 명사를 파생한 것이다. ㉣: '자유롭다'는 명사인 어근 '자유'에 접미사 '-롭다'를 붙여 형용사를 파생한 것이다.

54

정답 풀이 ㉠은 어근이자 용언의 어간 '끓-'이 '이'를 수식할 때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한 다음 연결되었는데,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은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은 어근이자 용언의 어간 '끓-'이 어미를 취하지 않고 뒤에 오는 '푸르-'와 바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55

정답 풀이 '으뜸벗'은 '으뜸'이라는 명사와 '벗'이라는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단어가 배열된 것에 해당한다.

수능 도전 본문 262~263쪽

56

정답 풀이 '새롭게'는 어근 '새' 뒤에 접미사 '-롭다'가 붙어 형성된 말 '새롭다'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57

정답 풀이 '굽은'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58

정답 풀이 '떠넘기면'의 어간은 '떠넘기-'이다. '떠넘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뜨-'와 어근 '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또한 '넘기-'는 다시 어근 '넘-'과 접사 '-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떠넘기-'는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한다.

59

정답 풀이 '뛰노는'은 '뛰-+놀-+-는'으로 분석되는데,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르게 연결 어미로 이어지지 않고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여 형성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60

정답 풀이 '겁먹다'는 '겁'과 '먹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목적어 '겁(을)'과 서술어 '먹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합성어이다.

61

정답 풀이 '물고기'는 '물(어근)+고기(어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책가방'은 '책(어근)+가방(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반면, '지우개'는 '지우-(어근)+개(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며, '심술쟁이'는 '심술(어근)+쟁이(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62

정답 풀이 '잘못'의 앞말 '잘'과 '못'은 모두 부사인데, '잘못'은 합성 명사로 쓰이기도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63

정답 풀이 ㉢은 '굽-(동사 '굽다'의 어근)+도구(명사 어근)', '말-(동사 '말다'의 어근)+도구(명사 어근)'로 분석할 수 있다. 모두 동사 어근과 명사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동사 어근이 어미와 결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사 어근과 직접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64

정답 풀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 '-쟁이'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이는 말이고, '-장이'는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뜻일 때 붙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대장쟁이'는 수공업적인 방



법으로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다루는 일인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를 의미하므로 '-장이'가 붙어야 하고, '중매장이'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인 '중매'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쟁이'가 붙어야 한다. 따라서 (1), (2), (3)의 예로 '육십쟁이, 중매쟁이, 대장장이'를 추가할 수 있다.

65

정답 풀이 ㉔은 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의미는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밤낮'이 의미가 바뀌어 '늘'이라는 부사로 쓰이게 된다.

27~28일		종합 평가		본문 264~267쪽	
1 ㉔	2 ㉓	3 ㉔	4 ㉔	5 ㉔	6 밝-, 뜨-
7 ㉔	8 ㉔	9 ㉔	10 ㉓	11 ㉔	12 ㉓
13 ㉔	14 ㉓	15 ㉔	16 ㉔	17 ㉔	18 ㉑: 맨손, 헛기침, ㉒: 달리기, 먹
이, 바느질, 지우개	19 ㉔	20 ㉔			

1
정답 풀이 '맺혔다'는 '맺-', '-히-', '-었-', '-다'의 네 개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2
정답 풀이 의존 형태소는 '가', '눅-', '-고', '푸르-', '-다'의 5개이다.

3
정답 풀이 ㉑ 조사, 어미, 접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㉒ 용언 어간은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나,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4
정답 풀이 '찌-'(용언 어간)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에'(조사)와 '-었-'(어미)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5
정답 풀이 제시된 문장에서 단어는 '나, 그, 사람, 의, 손, 을, 가만히, 잡았다'이고, 자립 형태소는 '나, 그, 사람, 손, 가만', 의존 형태소는 '는, 의, 을, -히, 잡-, -았-, -다', 실질 형태소는 '나, 그, 사람, 손, 가만, 잡-', 형식 형태소는 '는, 의, 을, -히, -았-, -다'이다.

6
정답 풀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용언 어간은 '밝-', '뜨-'이다.

7
정답 풀이 실질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은 자립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8
정답 풀이 '도'는 조사로, 앞말에 붙어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 하나 단어의 성질을 바꾸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9
정답 풀이 '찍었다'의 '-었-'이나 '-다'는 어미로, '찍었다'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일어이다.

10

정답 풀이 ㉑은 명사이고, ㉒은 의존 명사이다. 명사와 의존 명사는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정답 풀이 '따님(←딸+님)'은 형태 변화는 있고 의미 변화는 없는 단어로, ㉑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㉔ '팔다리'는 남이 의도하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앞잡이 노릇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12

정답 풀이 ㉑은 '피'라는 명사와 '땀'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㉒은 '송이'라는 명사 두 개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풀이 '앞서다'는 '체언(앞)+용언(서다)'의 유형이다.

14

정답 풀이 '오르내리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5

정답 풀이 '뉘지붕'과 '떡요일'은 둘 다 '용언 어간+체언'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6

정답 풀이 '눅다랗다'는 형용사 어근 '눅-'에 접미사 '-다랗다'가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로, '-다랗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았다.

17

정답 풀이 '기쁨'은 어근 '기쁘-'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으로, 관형어 '재회의'의 수식을 받는 것에서도 명사임을 알 수 있다.

18

정답 풀이 ㉑: 맨-+손, 헛-+기침, ㉒: 달리-+-기, 먹-+-이, 바늘+ -질, 지우-+-개

19

정답 풀이 '깊이'의 '-이'는 어미가 아니라 부사 파생 접미사이다.

20

정답 풀이 '공부하다'는 명사 어근 '공부'에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